

#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홍민



#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연구책임자: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실장)

##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김정은 정권 5년 통치전략과 정책 실태

KINU 연구총서 17-19

발행일 2017년 12월 31일

저자 홍민

발행인 손기웅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북한연구실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아미고디자인(02-514-5043)

인쇄처 세일포커스(02-2275-6894)

I S B N 978-89-8479-911-0 93340

문화 정치[文化政治], 북한 정치 사정[北韓政治事情]

340.9111-KDC6 / 320.95193-DDC23 CIP2018009145

가격 6,000원

© 통일연구원, 201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차례

요약 .....	9
<b>I. 서론 .....</b>	<b>15</b>
1. 연구목적 .....	17
2. 연구의 내용과 주요 개념 .....	20
<b>II. 아파트 건설정치와 통치 테크놀로지 .....</b>	<b>27</b>
1. 살림집(아파트) 건설의 역사와 정치경제 .....	29
2. 국가-자본의 건설 유착과 도시정치 .....	41
3. 시장과 권력의 결합: 김정은식 경기부양 .....	52
<b>III. 권력의 시각적 경관화와 통치 테크놀로지 .....</b>	<b>59</b>
1. 사회주의문명화와 권력의 도상학 .....	62
2. 김정은 정권 도시건설 속 권력의 도상학 .....	68
3. 건설의 스토리텔링과 통치 테크놀로지 .....	96
<b>IV. 도시 모빌리티와 통치 테크놀로지 .....</b>	<b>103</b>
1. 외부 문화유입과 사회적 모빌리티 .....	106
2. 도시 규율과 사회-기술적 장치 .....	110
<b>V. 결론 .....</b>	<b>117</b>
<b>참고문헌 .....</b>	<b>124</b>
<b>최근 발간자료 안내 .....</b>	<b>129</b>

## 표 차례

표 II-1	1970년대 이후 평양시의 아파트 건설 현황 .....	38
표 III-1	김정은 집권 이후 주요 건설사업 .....	65
표 IV-1	새로운 공민증 발급 현황 .....	114

## 그림 차례

그림 II-1	북한 아파트 건설 방식 .....	45
그림 III-1	대북제재와 주요 평양시 건설 .....	68
그림 III-2	도시입구공간의 건축 형성과 시점의 특징: 스카이라인 형성 .....	92

## 사진 차례

사진 III-1	김정은 미래과학자거리 건설 현장 비행 현지지도 사진	72
사진 III-2	김정은 창전거리 살림집에서 시가지 조망 사진	73
사진 III-3	김정은의 여명거리 현지지도와 건설 현장을 담은 사진	74
사진 III-4	김정은의 능라인민유원지 개발사업 현지지도 사진	76
사진 III-5	김정은의 개선청년공원유희장 요해 사진	77
사진 III-6	김정은의 창전거리 현지지도 사진	78
사진 III-7	김정은의 경상유치원 현지지도 사진	79
사진 III-8	김정은의 김책공업종합대학교 현지지도 사진	80
사진 III-9	김정은의 여명거리 건설장 현지지도 사진(1)	81
사진 III-10	김정은의 여명거리 건설장 현지지도 사진(2)	82
사진 III-11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 완공 모습	86
사진 III-12	김정은의 입체울동영화관 현지지도 모습	87
사진 III-13	여명거리 건설현장 야경	89
사진 III-14	평양의 야경	90
사진 III-15	통일거리 스카이라인	94
사진 III-16	광복거리 스카이라인	94
사진 III-17	창전거리 스카이라인	95
사진 III-18	은하과학자거리 스카이라인	95
사진 III-19	미래과학자거리 스카이라인	96
사진 III-20	여명거리 건설 소식을 전하는 노동신문 기사	98
사진 III-21	여명거리 골조 완성 단계를 보여주는 기사	98
사진 III-22	여명거리 건설장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기사	99
사진 III-23	여명거리 건설자들의 일화를 소개하는 기사	99
사진 III-24	여명거리 이용허가증 수여식 소식을 전하는 기사	100
사진 III-25	여명거리를 통해 국력과 핵강국의 지위를 과시하는 선전적 이미지	100



## 요 약

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의 통치전략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차원에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북한에서 국가라는 이름의 통치 권력이 개인에 대한 훈육과 공간적 통제를 행하는 인민에 대한 내생적 조정자(endogenous regulator)에서, 다양한 이동의 효과를 조정하고 촉진하며 때로는 거기에 대응하는 외생적 조정자 또는 국가(exogenous state)로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1990년대 시장화 이후 북한은 점차 이동성(mobility)을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부터 이동성을 활용하고 '조정'하는 데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 이동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동성'을 활용하면서 이것이 초래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과거에는 공식조직과 주거·생활공간이라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 개인을 배치하고 가두는 방식의 통제를 했다면, 점차 개인의 이동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이런 변화는 일정부분 공간을 조직하고 배열하는 것을 통해 통제된 이동과 흐름을 만들어내던 방식이 일정한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시장화는 기본적으로 사람, 화폐, 상품, 정보, 기술 등의 '이동성'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국가권력이 이동성을 통제하는 데서 활용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는 것은 시장을 활용하는 전략의 변화이자 통치 테크놀로지의 변호로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시장화에 따른 이런 전략적 변화, 다시 말해 이동성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통치 테크놀로지의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라는 주제로 김정은 집권 이후 나타난 통치에서의 특징적 요소를 세 가지 차원에서

## 요 약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주의문명화’, ‘건설정치’, ‘도시 모빌리티’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김정은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주의문명화’라는 용어는 2013년 처음 등장 이후 현재까지 김정은 정권의 문화정치를 상징하는 키워드로 통치담론의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크게 보면 사회주의문명화는 모든 건설,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인민들이 향유하는 문명 수준을 높이는 담론이다. 2016년 이후로는 물질문명, 도덕적 품성, 문화지식, 건강한 체력 등으로 보다 구체화된 내용으로 체계화되고 있다. 도시부문 건설이나 체육 성과처럼 실제 일상생활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향상’의 모습을 통해 주민들이 체제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담론으로 볼 수 있다. 통치 테크놀로지 차원에서 본다면, 물질적으로 공간상에 문명화를 구현하는 것과 주민들의 의식 및 육체를 문명화하는 것으로 크게 나뉘 볼 수 있다. 이 둘 모두 공간과 인간을 통치 대상화하여 문화적 수단을 통해 규율화 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김정은 집권 이후 나타난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소위 말하는 전국적인 ‘건설 붐’이다. 창천거리,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등 김정은 집권 이후 매년 굵직한 대규모 건설이 이어졌는데, 모두 사회주의문명국의 성과로 선전되고 있다. 대규모 건설과 거리 조성 등을 통한 통치 차원의 도시 및 문명의 ‘경관화’가 통치 테크놀로지 차원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문명국을 명분으로 이루어진 도시 건설은 시장메커니즘과 결합돼 ‘김정은식 경기 부양’ 및 ‘시장 효과’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 건설사업 ‘붐’은 정권의 이해, 주민 및 관료들의 이해, 그리고 시장의 이

## 요 약

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의 이러한 ‘건설정치’는 통치 테크놀로지 차원에서 주목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문명화 담론과 건설정치는 시장화를 촉진하며 도시의 모빌리티를 한층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시켰다. 시장화 이후 증가한 도시 내·외부를 연결하는 이동성(인간·상품·화폐·정보·기술의 네트워크와 흐름)의 폭발적 증가에 대응한 통제 및 치안 기제, 이동성을 확장하거나 통제하는 사회-기술적 장치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도시 내·외부의 이동성과 통제와 관련된 통치 테크놀로지 구현과 문화정치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과 특징 도출에 기초하여 김정은 정권의 내구력과 안정성을 파악하고 향후 예상되는 정책적 행보에 대해 전망함으로써 한국의 대북 정책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제어:** 통치 테크놀로지, 문화정치, 권력의 도상학, 사회-기술적 시스템

## Abstract

### Kim Jong-un Regime's Six-year Reign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ing Technology and Cultural Politics

*Hong, Min*

This study delves into Kim Jong-un's six-year reign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ing technology' and 'cultural politics.' For this purpose, the study analyzes the specific aspects of how the governing technology and cultural politics have unraveled in different areas such as discourse, image, space, and policing. First, the study enquires into the details of official discourse and the socio-technical system intended for the integration and control of the masses and as responses to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setting. Second, the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symbols, signs, and images produced by various media and the socio-technical mechanisms that are on display in quotidian lives. Third, the paper probes the political reign reflected in different spaces, such as various buildings, landmarks, streets, and sceneries. Lastly, it explores the trend of increased mobility—network and flow of people, goods, currency, information, and technology—since marketization and Kim Jong-un's socio-technical apparatus as a response to such trend, containing this mobility. Based on these, the authors analyzed the implications of the aspect

## Abstract

of governing technology and cultural politics represented in discourses, image, space, policing, etc. on regime stability and ruling paradigm.

**Keywords:** Governing Technology, Cultural Politics, Iconography of Power, Socio-Technical System



# I. 서론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 1. 연구목적

2017년 4월 13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여명거리 준공식이 개최되었다. 사전에 외신 기자들에게 ‘빅 이벤트(big event)’ 볼 준비를 하라고 통보하였는데, 바로 여명거리 준공식이었다. 이례적으로 외신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은 근거리 촬영을 허용하는 등 파격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2016년 9월 9일 제5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2321호)가 한층 강화된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비웃듯 여명거리는 그렇게 국제사회에 화려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몇 년 더 거슬러가서 2014년 5월 12일, 북한의 평양시 평천구역 안산 1동에서 23층 아파트(1개동 92세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sup>1)</sup> 약 5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인민보안부장 최부일이 주민들 앞에서 머리를 숙여 사과하는 장면이 이례적으로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끈 바 있다. 평양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형 붕괴 사고는 북한의 무리하게 진행되는 ‘속도전’식 건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지만, 그로부터 여명거리 준공식까지 북한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 및 거리 조성사업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전국적으로 계속되었다.

지난 6년의 김정은 집권 기간을 가장 함축적으로 특징짓는 용어는 핵·미사일 고도화와 함께 ‘건설 붐’일 것이다. 2012년 집권 이후 거의 매년 대규모 거리 조성 및 아파트 건설 이외에도 굵직한 건축물들이 전국 도시 곳곳에서 신축·재건축되었다. 사실상 집권 6년 내내 북한은 ‘공사 중’이었다. ‘건설 붐’ 현상은 늘어가는 공식시장, 물가와 환율의 안정세, 왕성해 보이는 주민들의 소비생활 등과 오버랩되었다. 집권 기간 총 83회의 미사일 발사와 3~6차에 걸친 총 네 번의 핵실험을 감행했고 총 6회에 걸쳐 고강도 제재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었

<sup>1)</sup> 홍민, “북한의 아파트 건설시장과 도시정치,” 『KDI 북한경제리뷰』, vol. 16, no. 8 (2014), p. 35.

다.<sup>2)</sup> 촘촘하게 좁혀오는 제재 그물망으로 북한경제가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북한 도시는 여전히 ‘건설 중’이다.

드러난 모습만 본다면, 김정은의 통치 행태는 양면적이고 때로는 모순적이다. 잔인해 보이는 친인척 및 측근들에 대한 공포정치 한편으로 눈물을 글썽이거나 환하게 웃는 인민 친화적인 애민 행보가 있다. 한껏 솟아 오른 전시적인 고층건물과 화려한 거리 조성을 자랑하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건설을 위해 동원된 돌격대들의 힘겨운 노동과 ‘속도전’ 식 몰아치기 공사의 후유증 역시 있다. 백마 탄 복고적 수령 이미지 연출과 Moran봉악단의 미키마우스, 시장 친화적 정책과 주민들에 대한 물리적 통제 강화 등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공포정치’와 ‘핵·미사일’의 프레임이 한국 및 국제사회의 북한 인식을 압도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호전성과 비정상성이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져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에 대한 평가는 특정의 프레임과 이미지를 통한 인상주의적 평가 이상의 통치 테크놀로지 차원의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김정은의 행태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통치 기술 차원에서 보면 전략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통치 행태들 속에 숨겨진 의도와 구현 방법을 통치 테크놀로지 차원에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김정은 집권 이후 나타난 통치 행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인 대규모 아파트 및 거리 조성 과잉 현상과 도시 재개발 정책에 주목하고자 한다.

소위 ‘건설 붐’ 또는 건설 과잉 현상으로 보이는 김정은식 건설정치는 ‘사회주의문명국’론 및 ‘핵강국’론과 표리일체로 담론화되어 왔다. ‘사회주의문명국’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2013년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선언하며 그 지위에 걸맞은 문명국의 위용을 강조해 왔다. 대규모 건설과 거리 조성 등을 통한 통치 공간의 스펙터클(spectacle)화, 도시의

<sup>2)</sup> 홍민,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서울: 통일연구원, 2017), p. 5.

경관화는 ‘핵강국’의 위상과 정당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각적 담론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건설정치’는 ‘핵정치(nuclear politics)’와 연결돼 있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건설사업은 시장메커니즘과 결합된 ‘김정은식 경기 부양’ 및 ‘시장 효과’와도 관련돼 있다. 도시 건설사업 ‘붐’은 정권의 이해, 주민 및 관료들의 이해, 그리고 시장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주의문명화 담론과 건설정치는 시장화를 촉진하며 도시의 모빌리티를 한층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시켰다. 시장화는 도시 내·외부를 연결하는 이동성(mobility) - 인간·상품·화폐·정보·기술의 네트워크와 흐름 - 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왔고, 이에 대응한 국가권력의 치안활동(policing) 기제, 이동성을 통제하는 사회-기술적 장치(socio-technical device)<sup>3)</sup>에 대한 필요를 증가시켰다. 이런 차원에서 도시 내·외부의 이동성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된 통치 테크놀로지의 구현과 문화정치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라는 주제로 김정은 집권 이후 나타난 통치에서의 특징적 요소를 ‘사회주의문명화’, ‘건설정치’, ‘도시 모빌리티’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분석과 특징 도출에 기초하여 김정은 정권의 내구력과 안정성을 파악하고 향후 예상되는 정책적 행보에 대해 전망함으로써 한국의 대북정책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

<sup>3)</sup> ‘사회-기술적 장치(socio-technical device)’는 이동성을 통제하는 통제 기제 또는 시장화 및 이동성을 조정하는 국가권력의 메커니즘이 상식, 기준, 표준, 관습, 법·제도, 정보, 화폐 등과 같은 사회적인 것과 여기에 동원되는 각종 사물, 인공물, 통신, 통계, 그래프, 건축물, 수송, 과학적 지식 등과 같은 기술적인 것들의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질적인 다양한 비인간(non-human) 행위자들의 결합을 통해 ‘장치’가 일정한 효과를 낸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기술적 장치’ 개념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을 통해 구체화되었는데, 보통 장치를 뜻하는 영어와 프랑스어인 ‘device’, ‘apparatus’, ‘dispositif’(프랑스어) 이외에도 ‘system’, ‘network’ 등과 같은 뜻으로 혼용하여 쓴다.

## 2. 연구의 내용과 주요 개념

### 가.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대규모 살림집(아파트) 건설이 통치 테크놀로지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에서 대규모 살림집(아파트) 건설은 단순히 주거시설 건설 이상의 상징성과 정치성을 가지고 있었다. 남북한 체제 우월성 경쟁과 최고지도자의 통치력을 과시하는 데 있어 대형 공장·기업소의 위용을 보여주는 것을 제외하면 살림집 건설만큼 시각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경제난으로 인해 1990년대 초 중단되었던 대규모 살림집 건설 프로젝트는 2008년 이후 재개되어 김정은 시대 들어 본격화되었다. 김정은 시대 대규모 살림집 건설 재개의 배경에는 통치전략상의 필요성, 권력기관 및 관료들과 시장 사이의 이해관계가 결합한 일종의 ‘도시정치(urban politics)’<sup>4)</sup>의 복잡한 함수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북한에서 전개된 대규모 살림집 건설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정치경제와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고 김정은 시대의 ‘건설 붐’ 이면에 있는 국가와 시장의 이해관계를 통치전략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대규모 살림집 건설이 통치의 ‘시각적 경관화’ 차원에서 갖는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통치의 시각적 경관화’는 영토 내 도시 공간을 특정한 형태와 다이어그램(diagram), 표상과 이미지로 시각화(visualization)하고 경관화(landscaping)함으로써 통치의 가독성(legibility)과 상징성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sup>5)</sup>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등장한

4) Kevin Ward and David Imbroscio, “Urban Politics: An Interdisciplinary Dialogu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35, no.4 (2011), pp. 853~871.

5) 도시를 통치의 가독성 확보 차원에서 설명한 연구로는, 제임스 C. 스큐트 지음, 전상인 옮김,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서울: 에코리브르, 2010), pp. 97~111.

‘사회주의문명국’ 담론을 도시공간에 구현하는 것이 갖는 통치 테크놀로지 상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주의문명화’란 용어는 2012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처음 등장한 이후 현재까지 김정은 정권 ‘건설정치’의 내용과 성과를 수렴하는 상징적 키워드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주의문명화’ 담론 속에 담겨진 통치의 도상학적(iconographical) 기호들, 통치를 위한 위계적이고 기념비적인 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시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시장화 이후 증가한 사회적 이동성(mobility) - 인간·상품·화폐·정보·기술의 네트워크와 흐름 - 과 이에 대응한 김정은 정권의 통제·치안 기제와 사회·기술적 장치가 갖는 통치 테크놀로지 상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사회주의문명화 담론과 건설정치는 시장화를 촉진하며 도시의 이동성을 한층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시켰다. 시장화 이후 증가한 도시 내·외부를 연결하는 이동성의 폭발적 증가는 직장이나 조직 단위로 이루어지던 기존 통제·치안 기제의 변화를 요구한 측면이 있다. 이동성을 통제하기보다는 이를 확장하면서 통제하는 새로운 통치 테크놀로지 상의 사회-기술적 시스템(socio - technical system)의 고안과 구체화가 필요해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내·외부의 이동성과 통제와 관련된 통치 테크놀로지의 구사와 문화정치를 알아보고자 한다.

## 나. 주요 개념

### (1) 통치 테크놀로지

프랑스의 사회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논의에 기초한다면, ‘통치(government)’ 또는 ‘통치성(governmentality)’은 주민의 삶과 일상생활에 대한 미시적 관리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통치성은 제도, 절차, 분석, 그리고 계산의 방식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특정한 정부의 장치를 이루고, 성찰적 행위와 윤리적 능력을 구성하는 지식의

형태를 형성한다. 통치성이 국가와 관련될 때, 이는 사회 질서 전반에 걸친 규제라는 광범위한 의미에서 이해되고, 푸코식으로 얘기하면 사회에 대한 치안(policing)을 의미한다.<sup>6)</sup> 이를 통해 한 사회의 사람들이 관료 제도나 규율양식에 복종하면서 나타나는 효과를 의미한다.

통치성은 권력의 늘어나는 미시적 모세혈관 양상으로 볼 수 있는데, 즉 집중되었다기보다 분산된 다수의 힘의 관계이다. 이는 의료, 교육, 사회개혁, 인구통계와 범죄학을 통해 작동하는 규제양식을 포함하는데, 이들에 의해 인구가 범주화되고 관리 가능한 집단으로 배치될 수 있다.<sup>7)</sup> 이런 논의의 맥락에서 본다면, '통치 테크놀로지(governing technology)'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규제하는 것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의 배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결국 통치 테크놀로지가 핵심적인 축으로 삼는 것은 '인간 삶/생명'이다. 푸코가 '행위의 관리(conduct of conduct)'라고 정의했던 '통치'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고, '행위의 관리'는 '삶/생명'에 대한 관리 차원으로 확장된다. 푸코가 말하는 '생명정치(biopolitics)'는 바로 인간의 삶/생명을 관리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에너지를 뽑아내는 정치를 뜻한다.<sup>8)</sup>

## (2) 문화정치

'문화정치(cultural politics)'의 개념은 문화가 정치과정에서의 지배와 저항에서 수행하는 역할로 정의할 수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정치과정에서 문화가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이란 측면, 다른 하나는 정치 현상에 대해 문화적 차원의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문화'는

<sup>6)</sup> 사카이 다카시 지음, 오하나 율김, 『통치성과 '자유': 신자유주의 권력의 계보학』(서울: 그린비, 2011), pp. 175~180.

<sup>7)</sup> 크리스 바커·다리우시 갈라신스키 지음, 백선기 옮김, 『문화연구와 담론분석: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담화』(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p. 333.

<sup>8)</sup> 미셸 푸코 지음, 박정자 옮김,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1976,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의 강의』(서울: 동문선, 1998), pp. 277~304.

세계에 대해 경쟁하는 의미와 서술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싸우고 발화자가 권력의 양식 안에서 진실을 주장하는 논쟁의 장<sup>9)</sup>이다.

따라서 ‘문화정치’의 주요 연구 관심사는 ① 이름 짓는 권력(power to name) 또는 호명하는 권력, ② 상식을 재현하는 권력 ③ ‘공식적 시각(official version)’을 만들어내는 권력 ④ 합법적인 사회세계(social world)를 재현하는 권력 등이다. 문화는 사회적 지배가 유지되는 영역이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저항의 움직임이 유발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문화정치는 곧 지배와 저항을 둘러싼 정치의 문화적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문화정치는 상식과 세계에 대한 ‘공식적’ 해석을 포함하여 대상이나 사건에 이름을 붙이고 그리하여 합법화하는 권력에 대한 것이다. 문화정치는 세상을 재현하는 능력과 특정한 기술(descriptions)을 ‘고정시키는’ 능력에 입각해서 이해될 수 있다.<sup>10)</sup>

### (3) 사회 - 기술적 시스템

‘사회-기술적 시스템(socio - technical system)’은 과학기술학(STS),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 등에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기본적으로 ANT에서 ‘사회’는 인간들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기존에 ‘사회적인 것(the social)’은 인간 행위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로 구성되며, 사회구조, 사회규범, 사회질서 등 구조적 함의를 갖는 ‘사회’가 실재하는 것처럼 간주했으나, ANT에서 그런 ‘사회’는 실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인간 행위자와 그 외의 모든 비인간적 행위자들의 결합이라고 본다. 사회적 관계는 인간(human) 행위자뿐만 아니라 기계, 기술, 사물, 텍스트, 이미지, 물리적 환경 등 비인간(non-human) 행위자들을 통해 구축되는 것이다.<sup>11)</sup> 인간의 능력은 비

<sup>9)</sup> 크리스 바커·다리우시 갈라신스키 지음, 백선기 옮김, 『문화연구와 담론분석: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담화』, p. 88.

<sup>10)</sup> 위의 책, p. 132.

인간적 구성 요소와 접속해야만 현실화되기 때문에 인간만으로 구축된 사회란 사실상 ‘관념’에 불과한 것이다. 사람의 감각은 사람과 사람 사이 뿐 아니라 사람이 자연과 기술, 사물, 텍스트, 이미지와 관계를 맺을 때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대부분의 사회적 실체는 인간과 다른 구성 요소의 관계 속에서 출현하며 인간만의 사회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는 필연적으로 하이브리드(hybrid)라고 본다.<sup>12)</sup>

시장화는 하나의 사회-기술적 시스템 또는 장치(dispositive, device)라고 볼 수 있다. 가령 상품은 공간 속에서 교환의 네트워크 내지 연쇄를 이룬다. 이 과정에는 인간, 정보, 기술, 인공물, 규범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여하고 결합해 있으며 이들의 연쇄와 접속으로 ‘수행(doing)’된다. 상품세계는 이러한 흐름과 교환이 없다면, 그리고 점포, 창고, 선박, 열차, 트럭이나 길과 같은 것들 사이의 앙상블(ensemble)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실재(realities)’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시장화는 이런 사회-기술적 시스템의 수행 그 자체로 볼 수 있다.<sup>13)</sup> 시공간을 압축, 수축시키는 여러 새로운 기술과 기계, 사회적 경계를 횡단하고 정비하는 하부구조의 발전, 케이블, 시청각 전송, 텔레비전, 인터넷을 포함한 컴퓨터 네트워크, 인공위성, 신용카드, 팩스, 휴대전화, 전자증권거래소, 고속철도, 가상현실 기술 등이 일반적으로 시장이라는 교환을 수행하는 사회-기술적 시스템 속의 행위자들이다.<sup>14)</sup> 북한의 시장화는 일종의 새로운 유동

<sup>11)</sup> Bruno Latour,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Theory* (New York: Oxford Univ. Press, 2007), pp. 1~17.

<sup>12)</sup> 아르네스 블록, 토르벤 엘고르 엔센 지음, 황장진 옮김, 『처음 읽는 브뤼노 라투르: 하이브리드 세계의 하이브리드 사상』 (서울: 사월의 책, 2017), pp. 17~57.

<sup>13)</sup> Michel Callon, Fabian Muniesa and Yuval Millo, *Market Devices* (Blackwell Pub: Sociological Review, 2007), pp. 1~12; Hans Kjellberg and Helgesson, C. F., "Multiple versions of markets: Multiplicity and performativity in market practice,"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vol. 35, no. 7 (2006), pp. 839~855.

<sup>14)</sup> Marion Fourcade, "Theories of Markets and Theories of Socie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50, no. 8 (April 2007), pp. 1015~1034.

체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기술들이 등장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런 시장  
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치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II. 아파트 건설정치와 통치 테크놀로지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도시는 한 사회가 표방하는 이념적 지향 및 상징성, 현실태를 읽는 도상학(iconography)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sup>15)</sup> 아파트는 주택이라는 인공적 건축물 이상의 정치적인 경관(political landscape) 또는 통치전략과도 관련이 있다.<sup>16)</sup> 북한에서 아파트는 과거부터 체제의 우월성을 전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좋은 인공물(artifact)이었다. 여기에 건설 '속도'를 강조하면서 도시의 경관을 빠른 시간에 전변시키는 '기적'의 상징이었다. 대규모 아파트로 가득 찬 경관과 건설 실적은 '발전' 또는 체제 '우월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간주되었다. 북한에서 아파트는 '도시미화 운동'(city beautiful movement)의 차원에서 줄곧 강조돼 왔다. 보여주기 위한 계획적 미화, 권력의 상징으로서 기념비적인 것, 연극으로서의 건축에 해당한다.<sup>17)</sup> 본 장에서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김정은 정권까지 아파트(살림집) 건설의 역사를 통치 테크놀로지 차원에서 살펴본다.

## 1. 살림집(아파트) 건설의 역사와 정치경제

### 가. 김일성·김정일 시대 살림집 건설의 정치경제

#### (1) 전후 살림집 건설: '평양속도'의 탄생

북한의 주거양식 변화는 한국전쟁 이후 사회주의건설 과정에서 소련의 경험과 유산을 일정하게 모방·학습해 나가는 속에서 이루어졌다. 해방 직후, 건축에 필요한 자재가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주택 건설을 하는 것은 힘들었다. 해방 공간에서의 주택 건설은

<sup>15)</sup> 존 레니에 쇼트 지음, 이현욱 외 옮김, 『문화와 권력으로 본 도시탐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p. 110.

<sup>16)</sup> '정치적 경관'은 독일 제3제국(나치)의 선전상 괴벨스가 사용한 말이기도 한데, 경관을 정치적인 차원에서 가공하고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마르틴 바르케 지음, 노성두 옮김, 『정치적 풍경』 (서울: 일빛, 1997), pp. 13~15.

<sup>17)</sup> 피터 홀 지음·임창호 외 옮김, 『내일의 도시: 20세기 도시계획 지성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9), p. 273.

주로 해방 전 빈곤층과 서민들이 살던 귀틀집, 푹담집, 떼집, 농막, 초막 등과 같이 위생과 채광시설이 열악한 상태를 약개조하는 수준이었다. 그나마 한국전쟁은 이 모두를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 “석기시대로 되돌아 갔다”는 김일성의 표현대로 북한 전역이 파괴되었다. 전국의 건물과 기반시설의 70~80%가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공장건물 8천7백 개소, 2천9백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60만 호의 주택, 5천 개소의 학교, 1천 개소의 병원 및 진료소, 2백63 개소의 극장 및 영화관이 파괴되었다.<sup>18)</sup>

북한 당국은 전후 파괴된 도시와 공장을 복구 건설하기 위해 내각의 도시건설성을 도시경영성으로 개편하는 한편 국가건설위원회를 조직했다. 국가건설위원회는 도시와 공장지대 건설에 필요한 설계 작성을 지도하고 건설사업의 조직, 건설 트러스트 및 도시건설위원들에 대한 통제와 일체 국가건설사업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런 조직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기본 건설의 우선순위는 공장, 학교, 병원이었고 기관, 주택은 이차적이었다. 제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1956년부터 대대적인 주택 건설을 실시하게 된다.<sup>19)</sup>

한편 도시와 농촌의 시급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준화와 규격화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설계의 표준화와 규격화’, ‘자재생산의 공업화’, ‘건설의 기계화’가 김일성에 의해 1956년에 제시됐다.<sup>20)</sup> 표준화와 규격화는 대량으로 시공하기 쉽고 자재생산의 공업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계일꾼의 부족 문제도 일정 부분 타개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내부 반발이 나타났다. 1956년 표준화, 규격화 문제

18) 홍민, “토막집에서 고층아파트까지-북한의 주거문화,” 『월간 북한』, 2004년 8월호 (2004), p. 176.

19) 위의 글, p. 176.

20) 김일성, “건설사업에서의 혁신을 위하여-전국건축가 및 건설자회의에서 한 연설 (1956.01.30.),” 『김일성저작집 제10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0), p. 37.

가 제시된 이후, 1957년 말 건설사업에서의 종파주의 문제가 심도 있게 언급되기 시작했다.<sup>21)</sup>

김일성은 “조립식 건축이 종래보다 3.2배의 속도를 보장하였음에도, 평양시 설계연구소 일꾼들이 표준설계는 건설의 질을 저하시킨다느니 건축비를 보장하지 못한다느니 하면서 공명심에 사로잡혀 명성을 떨치기 위한 대상설계에만 몰두하고 있다.”<sup>22)</sup>고 평양시 건설자회의 연설에서 이들을 비판했다. 이 문제는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 말단 기관까지 대대적인 숙청이 전개되면서 일소되었고 조립식 건설을 통한 대대적인 건설열기가 조성되었다.<sup>23)</sup>

소위 ‘평양속도’로 불리는 건설 붐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김일성은 1958년 1월 평양시 건설부문 노동자들의 협의회에서 ‘건설에서 일대 혁신’ 지침을 제시하였고 이것이 곧 ‘평양속도’의 시작이었다. 김일성의 지침 제시 이후 1,600여 명의 평양시 건설자들이 결의모임을 가졌고, 7,000 세대분의 자재와 자금만으로 17,000 세대분의 살림집을 건설하는 결의가 나왔다. 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20,000 세대로 상향 수정되었다. 결과적으로 북한 주장에 따르면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20,000 세대분의 주택을 건설하는 신화를 창조한 것이다. 이후 ‘평양속도’는 각지의 노동자, 대학생 돌격대가 평양으로 깃발을 들고 와 새 도시건설에 참여했다는 동원의 ‘규모’와 ‘미담’, 그리고 14분에 한 채씩 집을 올렸다는 ‘속도’ 등으로 신화화되었다.<sup>24)</sup>

조립식 공법은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

---

21) 김일성, “건설분야에서 당정책을 관철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57.10.19.)),” 『김일성저작집 제11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1), pp. 334~352.

22) 김일성, “건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평양시건설자회의에서 한 연설(1958.12.25)),” 『김일성저작집 제12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1), p. 613.

23) 홍민, “토막집에서 고층아파트까지-북한의 주거문화,” p. 178.

24) 위의 글, p. 178.

조건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이였다. 이 때문에 1960년대 북한 주택건설의 약 60%, 그리고 2차 7개년 계획기간(1978~1984년)에는 약 90%가 조립식으로 건설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에도 대도시에 건설되고 있는 고층 아파트들은 조립식 공법으로 건설되었다. 조립식 공법은 속도전 방식과 결합해서 공사현장의 진풍경을 자아낸다. 가령 1989년부터 15만 명의 군인, 청년건설단, 당원돌격대, 평양시건설사단 등이 노동력으로 투입되어 전투를 방불케 하는 작업 풍경을 연출했다고 한다. 통일거리 공사의 경우 평균 6분 1초에 한 세대씩, 최고 4분 9초당 한 세대씩 골조를 조립, 1990년대 속도를 창조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sup>25)</sup>

그러나 조립식 공법은 콘크리트 패널을 끌어 올리는 기중기와 같은 장비의 부족과 패널을 옮기는데 필요한 교통장비의 부족, 수송로의 손실 위험 등을 수반하는 것이였다. 또 1960년대와 1970년대 초 건설된 대부분의 조립식 건축이 전통적인 벽돌식 건축 방법과 비교했을 때 질이 떨어졌고, 기술적 숙련도가 떨어졌던 초기 조립식 살림집들의 대부분은 매우 조잡하지만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시급하게 교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1960년대 지어진 북한의 살림집들은 어긋난 창문, 틈난 벽과 지붕, 고르지 못한 바닥, 비가 새는 지붕과 흰 유리로 악명이 높다.

한편 1970년대 후반에 건설된 고층아파트 역시 대부분이 애초 설계와 계획상에는 예정되었던 엘리베이터, 중앙난방 및 수도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아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서 지어졌다. 1980~1990년대 초에 건설된 2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도 심각한 에너지난과 자재난으로 실제적인 효율성은 떨어지고, 외부에 주는 놀라운 시각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형태의 단조로움과 함께 실질적인 편리성을 도모하지 못하는 내부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sup>25)</sup> 김일성, “신년사,” 『김일성저작집 제44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6), p. 297.

## (2) 1970~1980년대 아파트 건설의 정치경제

북한에서 아파트 건설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sup>26)</sup> 이 시기 1960년대에 축적한 조립식 공법의 경험을 토대로 대규모 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했다. 1972년에는 평양을 ‘혁명의 수도’이자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선전도시로 선포하고 본격적인 대형건축물 축조, 주택 및 신시가지 건설에 돌입하였다.<sup>27)</sup> 평양 시내 천리마거리와 서성거리 등에 5~15층의 고층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였다.<sup>28)</sup> 그렇다면 왜 1970년대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파트 건설에 몰두했던 것일까?

표면적으로 그 당시 북한의 경제는 현재보다는 어느 정도 양호했다고 볼 수 있지만, 1960년대 중반 이후 국방부문에 대한 과도한 재정 투여로 침체 국면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아파트를 전국적으로 대규모 건설하려면 시멘트, 강재, 목재, 전기, 골재, 기타 부자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대규모 재정이 필요하다. 1970년대 초반 1차 해외 자본 개방 조치는 실패로 끝났고 채무불이행국이라는 낙인을 얻었다. 국제적으로 석유파동과 국제곡물가 폭등 등 악재가 계속되었고 내부적으로도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 사정의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sup>29)</sup> 경제계획은 파행을 거

26) 물론 북한에서 아파트라는 주거형태는 이미 등장해 있었다. 그 형태도 다양했다. 섹피아식형, 외랑형, 중간복도형, 탑형 및 소층 정원형(보죽집) 등이다. 섹피아식형은 소련어로 ‘부분’이란 뜻이며, 한 개의 현관으로 올라가며 각 층마다 2세대, 혹은 3세대씩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한 아파트에는 이런 현관이 다섯 개 내지 여섯 개가 있게 되며 출입구가 다른 이웃세대와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 현대식 아파트는 대부분 이런 식인데 초기에는 주로 간부용 고급아파트에 해당했다. 외랑식은 1960년대 건설 초기에 많이 지어진 형태다. 각 층마다 후면으로 단일복도가 설치되어 긴 단일복도를 따라 방이 줄지어 있는 형태이다. 아파트 높이도 1950~1960년대 4, 5층에서 1970년대 들어서면서 고층 아파트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주강현, 『북한의 민족생활풍습 50년사』(서울: 민속원, 1999), pp. 304~305, p. 317.

27) 위의 책, p. 314.

28) 장성수·윤혜정, “북한의 주택정책과 건설실적에 관한 연구,” 『주택포럼』, 2000년 제2호(2000), p. 83.

29) 1960~1970년대 북한에서 인구와 식량의 관계에 대해서는, 홍민, “북한의 인구정치와

듭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경제상황 이외의 다른 곳에서 아파트 건설 추진 배경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차원이다. 김정일은 1974년 제5기 제8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후계자로 공식화된다. 이 시기부터 김정일은 후계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 본격적으로 아버지 김일성의 우상화와 유일지도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김정일은 후계자로서 자신만의 업적 쌓기와 김일성으로부터 확실하게 차기 지도자로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대규모 살림집 건설은 이와 같은 김정일의 업적 쌓기 차원에서 구상되고 실행되었다. 1972년 김일성 60세 생일과 1982년 70세 생일에 맞춰 대규모 살림집 건설이 구체화되었다. 이 대규모 건설사업은 당시의 북한 경제상황이나 중장기 경제계획의 합리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리하게 수립되고 진행되었다. 표면적인 명문은 ‘평양시 꾸리기 운동’에서 내세웠던 소위 도시미화사업의 차원이었다. 지도자의 가시적인 업적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어 도시미화 만큼 효과적인 것은 그리 많지 않다. 평양시 광복거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아파트 건설 열풍이 불었다. ‘기와집에 이밥과 고깃국’으로 표현되는 김일성의 이상적 사회주의적 삶의 실현에서 아파트는 ‘기와집’에 해당했다.<sup>30)</sup> 아파트는 인민생활 향상이란 차원에서 주민들의 주택난을 해결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도 반대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살림집 건설사업은 이미 수립돼 있는 중장기 및 연간 경제계획의 큰 조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원래 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중장기 계획이 파행을 빚을 수밖에 없고 매년 예정된 기본계획도 뒤로 밀리면서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졌다. 대규모 살

---

식량체제: 인구학적 변화 속의 주민 일상,” 홍민·박순성 엮음,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지배와 저항 사이에서』(서울: 한울아카데미, 2013), pp. 141~204 참조.

<sup>30)</sup> 홍민, “북한의 아파트 건설시장과 도시정치,” p. 38.

림집 건설과정은 최고지도자의 업적 쌓기라는 명분아래 이루어지면서 이런 권한을 부여받은 특권기관에 의해 재원의 상당부분이 대량으로 전용되면서 공식 경제기구를 무력화하는 원인을 제공했다.<sup>31)</sup> 여기에 건설에 동원되는 노동력은 김정일이 발기한 ‘속도전’과 기한을 정해놓고 성과를 올리도록 하는 각종 ‘전투’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sup>32)</sup> 김정일은 1974년에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해 건설 현장을 직접 감시·관리를 하기 시작했으며, ‘속도전청년돌격대(1975)’<sup>33)</sup>를 조직해 무상으로 노력 동원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1970년대 대규모로 이루어진 살림집 건설은 김정일이라는 새로운 후계자의 업적 쌓기를 위한 전시적 효과 차원에서 기획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70년대 대규모 살림집 건설은 ‘당경제’의 본격적 가동 시점과도 맞물린다. 김정일은 1972년에 제2경제위원회를 조직하는 한편 1974년에는 당 조직 상에 39호실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무역성 산하였던 대성무역을 39호실로 편입시키고 주요 무역부분을 당 산하에 두게 된다. 당의 통치자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당경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sup>34)</sup> ‘당경제’는 기존의 인민경제 부문과는 분리돼 당사업 및 통치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고 관리하는 체계로 자리를 잡게 된다. 기

31) 자재위원회가 보유한 국가 예비물자가 거덜나기 시작했고, 1970년대부터 당원돌격대, 속도전청년돌격대, 건설군부대 등이 건설위원회의 업무를 가로채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과거 주택으로부터 시작하여 공공시설 및 지구 개발에 이르는 건설 업무를 집중 관리 하였던 건설위원회의 권위가 크게 약화되었다. 특히 도시 주택건설 업무는 소멸되다시피 하였다. 이런 특권기관들은 1980년대에는 중앙 단위의 대규모 건설보다는 평양시 아파트 등을 자체적인 방법으로 건설한다거나 자기기관의 예산을 자체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제의서를 제출하여 워크를 받아갔다. 박형중·최사현,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66. 이 건설 ‘워크’가 1990년대 후반에 들어 특권기관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권한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2) ‘충성의 속도’(1974), ‘70일 전투’(1974), ‘100일 전투’(1971, 1978, 1980), ‘80년대 속도 창조운동’(1982) 등이 있었다.

33) 속도전청년돌격대는 1970년대 중반 창설 이래 1990년까지 창광거리, 문수거리, 통일거리, 광복거리 등 수많은 주요 아파트 건설에 동원되었다.

34) 박형중·최사현,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p. 57.

존에 인민경제 부문에 속했던 국내 물자의 상당 부분이 당경제의 영역을 들어간 것이다. 결국 경제의 중심이 되어야 할 인민경제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당경제 주도 아래 주민들에게 선심성으로 제공되는 ‘선물’들은 기본계획을 제치고 우선 생산을 하도록 하여 계획 경제의 파행성을 심화시켰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 역시 이런 계획경제 파행성의 한 현상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북한의 대규모 주택(살림집) 건설은 건설대상에 대한 투자액이나 경제적 타당성이 아닌 ‘교시’에 따라 설계, 건설되었다는 점이다.<sup>35)</sup> 따라서 중장기 경제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부담을 주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연간 경제계획이 아파트 건설에 들어가는 재정과 인력으로 인해 파행적으로 운영되었고 ‘계획의 무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sup>36)</sup> 물론 아파트 건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획되었지만, 경제적 합리성이란 차원보다는 지도자와 후계자의 치적을 쌓고 유일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적이고 전시적이며 동원적·노동착취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건설된 아파트는 일반 주민들에게 골고루 배정된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성분이 좋은 사람들에게 위계적으로 배분되었다. 1970년대 대규모 아파트 건설은 사회주의체제 우월성을 과시하는 전시적 측면, 후계 정치구도의 강화라는 측면, 파행적인 계획경제 운영이라는 측면, 특권계급에 대한 특혜적 배분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산물이었다.

## 나. 김정은 시대 대규모 살림집 건설 실태

경제난으로 인해 1990년대 초 중단되었던 북한의 아파트 건설은

35) 김영성, “북한의 건축양식들,” (월남 건축인 김영성씨 대한건축학회 특별강연회 자료, 1993.07.), p. 59.

36) 진희관·신지호, “북한의 경제관리 방식과 김정일체제의 경제정책 변화,” 고유환 엮음,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변화』 (서울: 선인, 2006), p. 662.

2008년 전후로 재개되었다. 정권 수립 60주년이 되던 2008년 말 만수대거리 아파트 건설의 시작이 재개의 첫 신호였다. 2009년 12월 김정일 위원장 집권 말기이자 내부적으로 김정은이 후계 학습 중이던 이 시기, 고급 아파트 단지인 만수대거리에 800여 세대의 입주가 완료되었다.<sup>37)</sup> 이것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평양 10만호 건설’ 사업이 시작된다. ‘강성대국 진입의 해’인 2012년까지 2년 남짓한 기간 안에 10만 호를 짓겠다는 목표였다.<sup>38)</sup> 2012년은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맞는 해였다. 위에서 1970~1990년대 사이 대규모 살림집 건설이 주로 김일성 생일을 목표로 건설되었던 것의 연속선상에서 본다면 2000년대 재개된 건설도 역시 1970~1990년대 같이 표면적으로는 김일성 생일이 주요 동기로 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7) “북 ‘평양 10만세대’ 사업 입주율 1.1% 불과,” 『연합뉴스』, 2011.01.03.

38) 북한 신년공동사설, 『조선중앙통신』, 2011.01.01.

표 II-1 1970년대 이후 평양시의 아파트 건설 현황

건설사업명	기간	사업규모(세대)	건축형식
천리마/서성거리	1970	-	5, 8, 10, 12, 15층 아파트
비파거리	1971	-	탑식, 평천식 2~3층 연립주택
대동로	1980	-	20, 30층
창광거리 1단계	1980	1천 2백여	
문수거리	1981~1983	1만 7천	* 김일성 70회 생일 기념
창광거리 3단계	1984	2천 4백여	
버드나무거리	1984	1천여	
천리마거리 2단계	1984~1987	4천여	
복새거리	1984~1987	4천여	
창광거리 2단계	1985	2천여	
만경대/동성구역	1988	-	
순안구역	1988	5천여	실리카트벽돌
광복거리	1985~1989	2만여	12~30층
인상택거리	1985~1989	-	10~30층
광복거리 2단계	1990~1992	3만여	
통일거리	1990~1992	2만여	* 전승 40돌(정전) 기념
창전거리	2012		
은과과학자거리	2013		
김일성대학교교육자 살림집	2013		
체육인살림집	2013		
위성과학자주택지구	2014		
김책공대교육자살림집	2014		
미래과학자거리	2015		
여명거리	2017		

자료: 통일원 정보분석실 엮음, 『북한개요』 (서울:통일원, 1992); 조선중앙통신사, 『조선 중앙년감』, 각 년치; 장성수·윤혜정, “북한의 주택정책과 건설실적에 관한 연구,” p. 84 재인용; 홍민, “북한의 아파트 건설시장과 도시정치,” 『KDI 북한경제리뷰』, vol. 16, no. 8 (2014), p. 37.

김정일 사망 이후,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대규모 고층살림집 건설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김정은은 김정일 시기 완공하지 못한

창전거리 공사를 재개하여 2012년 6월 만수대지구에 45층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를 13개월 만에 완공하게 된다.<sup>39)</sup> 이어 2013년에는 은하과학자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자아파트를 완공하였으며, 2014년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 완공을 목표로 위성과학자거리와 김책공업대학 교육자아파트, 김정숙방직공장 합숙소 등을 건설하였으며, 2015년 미래과학자거리, 2016~2017년 여명거리에 대규모 살림집이 건설되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대규모 아파트 건설은 ‘기획된’ 건설 붐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열풍’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는 ‘계급투쟁보다는 집이 우선’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부동산 열풍이 불었다. 최근에는 부동산 투자(아파트 건설 및 분양 투자)로 100만 달러 이상의 부를 축적한 신흥 부동산 부유층의 등장 소식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가령 이들은 30평대 아파트를 3~4만 달러에 분양받아 자신이 돈을 더 들여 인테리어 내부 장식을 한 뒤 최고 10만 달러에 팔아 수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sup>40)</sup>

이런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변성은 기존에 음성화되어 있던 부동산 거래 시장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김정은의 집권 이후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 정권이 아파트 건설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그 수요와 공급을 담당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자연스럽게 확대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08년 북한 당국이 평양시 10만호 건설사업을 발기

39) 창전거리 아파트는 원래 있던 외곽식 아파트를 모두 허물고 최고 45층짜리 아파트를 1년 만에 완공한 것이다. 그곳에서 살다 철거했던 주민들과 핵심계층을 입사시켰다. 김정은의 선물용 아파트라고 할 수 있다. 창전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운행되고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창전 아파트’ 매매가격이 없는 이유,” 『자유아시아방송』, 2013.01.23.

40) 가령 국방위원회가 대동강구역 동안동에 최근 신축한 160㎡짜리 아파트는 7~8만 달러, 중구역 평양의학대학 앞에 2013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던 160㎡짜리 아파트도 7~8만 달러 거래가 예상되었다. 시내 중심 중구역은 100㎡ 정도의 낡은 아파트도 3~4만 달러 정도 한다. 10여 년 전 5,000달러 정도 하던 평양의 아파트 가격은 2013년 현재 최고가 16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혁명의 도시’에서 ‘욕망의 도시’로,” 『동아일보』, 2013. 10.22.

하고 2012년 완공 목표를 세우면서 아파트 건설 열기는 더욱 가열되었다. 북한 지도부는 건설될 아파트들을 동별로 외무성,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국방위원회 등 각 권력기관에 할당해 주고 자체 완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하게 급조되어 날림으로 건설되는 아파트 건설을 사전에 검토하고 단속해야 할 당국이 오히려 아파트 투기를 부추겨 아파트 부동산 열풍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평양의 지위가 높은 간부와 부유층 사이에서는 거주하는 살림집을 통해 자신이 가진 권력과 위세를 과시하는 풍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실내장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실내장식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권세를 과시하는 측면 이상으로 자신의 사적 공간을 꾸미는 욕구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각 기관·공장의 건축 관련 부서들은 돈벌이를 위해 실내장식 수익사업에 나서고 있다. 권력층 및 부유층의 경우 인조대리석이나 원목마루, 난방 효과가 뛰어난 이중창틀, 고급스러운 커튼, 맞춤형 가구 등을 구비하고 아예 내부구조를 개조하는 공사도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특히 당 재정경제리부 소속으로 과거부터 김일성, 김정일 등 최고지도자 전용 특각, 체제선전 건축물, 당사 설계·건축 등을 전문으로 하는 북한 최고의 건축 설계·연구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 ‘백두산 건축연구원’<sup>41)</sup> 역시 돈벌이를 위해 이런 아파트 실내장식 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실내장식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중국의 업체들은 평양 시내의 아파트 실내장식 공사에 진출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지사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41) 백두산 건축연구원은 『조선건축』과 같은 전문 잡지를 계간지로 발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건축물만을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북한 최고의 설계사무소이다. 본래는 도시설계를 전담하던 소규모 집단이었으나 1962년에 설계연구원으로 확장된 데 이어 1989년 9월 김정일의 지시로 평양 중심부에 새 건물을 마련하고 현재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인민설계가와 공훈설계가들을 비롯한 수십 명의 박사·준박사급 전문 설계가와 이들을 뒷받침하는 젊은 설계가들이 모여 있다. 이곳에서 설계한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지난 1978년에 개관한 묘향산의 국제친선전람관, 평양시 창광거리, 1988년에 착공된 평양의 유경호텔 등이 꼽히고 있다. 주장현, 『북한의 민족생활풍습 50년사』, p. 328.

## 2. 국가-자본의 건설 유착과 도시정치

### 가. 주택거래 시장의 형성 배경

북한에서 아파트가 주민들에게 선망이나 투기 및 욕망의 대상이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를 위해서는 우선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전후 북한의 ‘베이비붐’은 한국과 달리 1953년부터 1970년대 초까지 매우 길게 지속되었다. 이들 베이비붐 세대들이 대체로 결혼 연령기에 도달하는 시기는 197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중후반까지이다. 이들 세대들의 주택 수요가 1980년대에 주택위기로 올 것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 실제로 이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학령기에 접어드는 1960년대 중반부터 식량문제와 교원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식량부족에 대비한 국가의 주요 정책은 학교 증설, 주체농법, 다락밭, 애국미, 절미운동, 곡물 수입, 도시민이 계절별로 농촌을 노력 지원하는 총동원 등이었다. 그러나 주택 수요 증가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비했다.<sup>42)</sup>

둘째, 대외적인 전시적 측면에서 주요 대형 건설이 평양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실질적 주택문제와 관련된 투자는 적었던 측면이 있다. 1970년대부터 김정일은 후계자로서 자신의 업적 쌓기 차원에서 평양시 도처에 기념비적 건설에 몰두했다. 가령 1974년 온성군에 왕재산대기념비를 건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우상화 관련 대형 기념비, 김일성혁명연구실, 동상 등이 건립되었다. 1982년 김일성 70세 생일에 맞춰 주체사상탑, 개선문, 김일성경기장, 인민대학습당, 평양산원, 창광원, 빙상관 등의 축조물과 창광거리<sup>43)</sup>가 건설되었다.

42) 류경원, “주택거래와 그 부정부패의 내막,” 『립진강』 제3호 (2008. 8), p. 9.

43) 천리마거리 옆으로 15~40층의 고층아파트 30여 동이 이 당시 들어섰다.

1980년대에는 기존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개방과 서울올림픽 등에 대응한 과시적이고 전시적인 평양 중심의 건설과 도시미화 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 건설은 이런 배경 아래 건설되었다. 이 당시 도시 주요 건설의 방향과 지도는 김정일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광복거리<sup>44)</sup>와 통일거리<sup>45)</sup>는 김정일의 주도로 시작되어 3년 만에 각각 3만 세대와 2만 세대의 고층 아파트를 완성하기도 했다. 1992년부터는 ‘전승 40돌’(정전 40주년) 기념일에 맞춰 통일거리에 추가로 1만 6천 세대 등 총 3만 세대를 건설하는 2단계 공사가 시작되었고 원산, 신의주, 함흥 등지의 지방 주요 도시에도 3,000~6,000세대 규모의 주택공사가 이루어졌다.<sup>46)</sup> 이런 아파트 건설 진행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 및 체제 전환의 여파를 내부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은 인민경제 재정이나 주민들에 대한 세외부담을 통해 충당되었고, 건설에 동원되는 인력은 대부분 주민들의 무상 노동력 형태로 이루어졌다.<sup>47)</sup> 특히 평양에서는 전후에 날

44) 1986년 이래 건설이 시작되어 도로 양옆으로 30만 명이 살 수 있는 매머드 아파트촌이 건설되었다. 특징은 수백 동이나 되는 아파트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모두 독특한 외형으로 건설한 점이다.

45) 평양시 남단인 낙랑지구에 건설된 고층 아파트 거리인 통일거리는 1992년 4월을 전후해 입주 시작되었다. 토성 입체다리부터 낙랑다리까지 10여 리 구간에 들어선 이 단지에는 25층, 30층, 45층 등 다양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다.

46) 주강현, 『북한의 민족생활풍습 50년사』, p. 315.

47) 일시에 많은 양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속도전이 요구되었다. 1980년대 초반에는 ‘1980년 대식 속도전’이 발기되었고, 후반에는 ‘200일전투’가 전개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1990년대식 속도’라고 해서 빠른 속도로 5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할 것을 촉구했다. 이 시한부 노력투쟁의 요체는 인민의 힘을 총동원하여 기본건설부문에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1990년대식 속도전 역시 아파트 건설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는 1989년부터 15만 명의 군인을 비롯하여 청년건설단, 당일돌격대, 평양시건설사단 등으로 불리는 각급의 노동력들이 투입되어 병영생활을 하며 건설을 다그쳤다고 한다. 통일거리 공사의 경우 평균 6.1분에 한 세대씩, 최고 4.9분당 한 세대씩 골조를 조립하여 1990년대 속도를 창조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주강현, 『북한의 민족생활풍습 50년사』, pp. 316~317.

림식으로 지은 주택들을 대대적으로 허물고 평양의 위용을 자랑하는 도시의 건설을 강행하여 강제철거 세대를 대량 발생시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에게 ‘동거’<sup>48)</sup>와 ‘뒤그루’<sup>49)</sup>의 고통을 안겨 주기도 했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에 대응해 개최했던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위해 건설된 선수촌은 무리한 과시용 투자였다. 이 축전 행사에 참가하는 외국인 1,500명을 위해 건설한 평양시 만경대구역 체육촌은 최고급의 내외장재를 사용하면서 전시성 거대한 낭비의 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처럼 1970~80년대에 이상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형 상징 기념물, 과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평양 중심의 대규모 거리 및 아파트 조성사업은 국가적으로 직면해 있던 주택난과 주민들의 주택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김정일에 의해 주도된 대대적인 각종 상징 기념물 건축은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우선 각종 명목의 대규모 건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막대한 국가 자재와 자금이 부정 유출되었다. 1980년대에는 외화를 활발하게 소비할 수 있게 된 중국, 러시아 파견 노동자들, 북송교포들과 해외 연고자들, 재외가족들의 주택 수요가 늘어났다. 이들이 가진 외화는 주택의 음성적 거래를 만들어내는 외화 공급원역할을 했다. 이 시기부터 국가의 주택 배정과 관련한 도시 행정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전국의 시·군들에서는 매년 보통 수십여 명의 당 및 행정 일꾼들이 주택 배정

48) 살고 있는 자신의 집 일부에 다른 가족을 들여 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9) 새로 지은 현대식 집에는 돈과 권력 있는 자들이 들고, 그들이 살던 집에는 그의 친척들이 들고, 친척들이 살던 낡은 집에는 새 집을 지으면서 철거된 세대들이 드는데 그 집을 ‘뒤그루’라고 한다. 이런 현상은 존스톤(R. J. Johnston)이 주장한 ‘상향식 주거여과과정(filtering-up process)’에 해당한다. 소득이 높은 계층의 가구가 신규 주택으로 이동함으로써 생기는 공가(空家)를 소득이 낮은 계층의 가구가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하여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주택여과 과정에는 인구구조와 규모, 주택의 노후화 정도, 가구소득의 변화, 공공주택 기관의 개입 등을 들 수 있으나, 북한의 주택여과 과정은 권력의 위계에 따른 정치적 지위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주택여과 과정과 주거이동에 대해서는 R. J. Johnston, *Urban Residential Patterns: An Introductory Review* (New York: Praeger, 1972), p. 98을 참조.

및 음성 거래와 관련된 부패로 각종 처벌을 받았다. 1980년대 이후 나타나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온 주택 암거래 시장은 국가의 도시경영 및 주택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sup>50)</sup>

1990년대 경제난은 국가 계획과 재정이 투입된 살림집 건설을 더욱 위축시켰다.<sup>51)</sup> 살림집 건설을 내각 부처별 또는 산하 기관에 떠맡겨 짓기 시작했다. 건설에 필요한 인력부터 자재보장까지 위로부터 아랫단위에 강제로 할당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강제로 할당을 받은 국가 하부기관들은 자체로 건설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소위 돈이 있는 개인들이 목표량을 할당받은 국가기관으로부터 명의를 빌리고 건설자금과 인력을 대서 건설하는 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꾸준히 아파트 건설과 수요가 있었던 배경에는 인구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1990년대 초 약 200만 명 정도이던 평양시 주민수는 이후 약 300~350만 명까지 늘어났다. 여기에 평양시 거주등록 없이 체류하거나 사는 일명 ‘미거주자’가 약 7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합치면 실제 300만 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sup>52)</sup>

## 나. 아파트 건설 메커니즘

2008년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북한의 아파트 ‘건설 붐’은 권력기관, 민간 시장자본, 도시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한 결과였다. 북한에서 통상 아파트라는 살림집이 건설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힘 있는 권력기관들이 건설 허가를 획득하여 건설하는 방식이다.

50) 류경원, “주택거래와 그 부정부패의 내막.” p. 11.

51) 소위 ‘고난의 행군’이 끝나는 1998년 이후 1999년에 잠시 신규 아파트 건설(약 5만 호 추정)이 있었으나 공식적인 국가예산 투입의 비중은 낮고 민간자본의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김근용, “북한의 주거실태와 주택투자 소요 추정,” 『건설경제』, 통권 57호 (2008. 12), p. 36.

52) “평양아파트를 붕괴시킨 건 ‘부패’다,” 『동아일보』, 2014.05.27.

평양의 대다수 아파트들은 이처럼 권력기관의 관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들 권력기관들이나 대형 공장·기업소들은 자신들이 획득한 건설 허가권을 가지고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 민간의 업자를 물색한다. 이들을 비공식적으로 모집해 권력기관이나 공장·기업소와 연결해 주는 모집책(브로커)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들 모집책들은 북한 내 민간 자본뿐만 아니라 화교 상인, 조선족, 중국의 자본을 유치하기도 한다. 이렇게 모집되는 민간업자들은 시장을 통해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는 소위 큰 돈주(개인)인 경우도 있고 여러 명의 돈주들로 이루어진 컨소시엄 형태인 경우도 있다. 이들은 건설에 필요한 자금, 자재, 장비, 인력 등의 일체를 제공한다. 대개 건축 자재들은 중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외화(달러) 거래가 기본이고 이런 자재 수입의 권한도 수도건설총국이나 제2경제위원회(군수부), 인민보안부 등과 같은 극히 일부 기관들이 독점하고 있다.<sup>53)</sup> 사실상 이런 권력기관을 끼거나 경유하지 않으면 건설사업 자체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1-1 북한 아파트 건설 방식



자료: "70년대 강남처럼 ... 평양도 아파트 건설이 최고의 재테크," 『중앙일보』, 2015.11.12.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812312](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812312)> (검색일: 2017. 10.15.); KDB 산업은행.

<sup>53)</sup> 위의 기사.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자재, 장비, 인력 등 실물적인 것을 직접 담당하여 공급하는 형태로 참여기도 한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들은 국가자금을 통해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민간자금, 즉 시장 영역에서 형성된 돈에 의존하여 건설이 대부분 이루어진다.<sup>54)</sup> 기관·기업소는 이들 민간 사업자와 아파트 건설계약을 체결한 후 내각 국가건설감독성에 건설계획을 보고한다. 실제로는 민간자금을 의해 건설되지만 국가건설계획에 들어가고 국가건설조립액에 잡힌다는 점에서 계획부문과 시장부문의 구분은 모호하다. 사후적으로 계획숫자(실적)에 포함될 뿐 실제로 대부분의 건설비용은 시장활동에서 형성된 민간자금이 의존한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 결산에는 국가 예산에 의해 건설된 것으로 국가건설조립액으로 잡힌다.<sup>55)</sup> 현재 신설되는 아파트의 약 80%가 민간에 의해 건설되고 있으며 신축된 아파트의 1/3 정도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56)</sup>

국가건설감독성 승인이 나면 건설 허가권을 가진 권력기관이나 공장·기업소는 인민보안부 산하 공병부대인 7총국(시공사), 수도건설총국(평양시 건설공사에 투입된 돌격대·건설단체 통제) 등과 연계하여 본격적

54) 외화가 많지 않은 북한은 최근 평양의 새로운 주택단지와 호화 아파트를 조성하면서 주택건설자금의 대부분을 중국 조선족과 화교 상인의 투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년간 평양 창전거리를 새로 조성할 때 화교 상인들은 대형 아파트 한동에 약 200만 달러를 투자해 아파트 분양 후 수익금 400만 달러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이후 북한이 잇따라 고급 아파트와 주택단지건설사업을 발주할 때마다 입소문을 듣고 온 화교 상인들이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5월 봉괴된 평양 아파트도 중국 화교들이 약 2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평양주재 중국대사관에 화교 상인들 민원 몰려,” 『NK지식연대』, 2014.05.28.

55) 북한의 국영기업 대부분이 액상계획과 사회적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활용한다. 국영기업 이외에도 비경제단위인 특수 권력기관은 아파트 건설과 같이 기관 이익의 많은 부분을 시장에 의존하면서 한편으로 시장을 창출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임강택, “북한 시장 활성화의 숨은 그림, 국영기업의 역할,” 『KDI 북한경제리뷰』, vol. 16, no. 6 (2014), pp. 32~33.

56) “북한의 음성적 매매에 따른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최근 동향,” 『KOTRA 북한경제정보』, 2014.02.25.

으로 건설에 착수한다. 인민보안부 7층국과 수도건설총국은 모든 평양시 아파트 건설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큰 규모의 아파트 건설에는 이들이 투입된다고 볼 수 있다.<sup>57)</sup> 이들은 시공의 전문성이나 인력 동원의 측면에서 가장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빠른 속도로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최정예 건설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민보안부 7층국이 시공과 건설을 주도할 경우 각종 인허가·감독 등 공사와 관련한 건설 진행상의 편의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공사에 갖는 책임과 위상은 2014년 4월 평양시 평천구역 아파트 붕괴사고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 붕괴사고로 인해 아파트 건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한 7층국장은 해임과 동시에 강제수용소행 처분을 받았고 설계와 시공을 담당했던 기술자 4명은 총살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sup>58)</sup>

2014년 기준으로 평양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살림집 각 층당 건설비가 4세대 기준으로 1,500~2,000달러 소요된다고 한다. 보통 전체 골조공사의 80% 이상이 진행되면 입사 예정자가 나머지 미장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하고, 이후 준공검사를 거쳐 전기 및 수도 등이 공급되는 방식이다.<sup>59)</sup>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전체 건설된 물량의 40~50%는 명의(건설허가권을 획득한 기관)를 제공하거나 시공을 담당했던 국가기관·기업소에 돌아가고, 40%는 건설에 투자한 민간업자에 돌아가고 (일반 분양, 통상 선 분양하여 자금조달), 10~20%는 인허가를

57) 인민무력부 7층국은 국가적인 산업 시설 건설을 전담하는 인민내무군 소속으로 최근 '평양 10만호 살림집 건설'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2014.05.23.

58) 『도쿄신문』, 2014.05.25.

59) 최고지도자 업적 과시용 아파트는 인테리어는 물론 가구와 가전제품까지 모두 갖춰놓은 상태에서 입주하는 방식이지만, 개별적으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벽면과 출입문, 창문, 전기선과 배수관 등 기본적인 건설만 끝난 상태에서 구매자에게 파는 방식이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평양시 안산 1동 아파트도 '골격'만 세워진 상태에서 입주한 92가구가 한창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붕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14.05.29.

담당하는 당국(인민위원회)에 배정된다. 이와 같은 물량의 배분 비율은 아파트 건설 물량을 할당받은 권력기관·기업소가 가진 힘과 권한의 정도, 인허가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개입·지원하는 권력기관의 힘 정도, 민간 자금 투입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

건설에 실질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민간업자들은 대부분 아파트 건설 초기부터 브로커를 통해 미리 선 분양하여 자금을 조달해 공사에 투입하는 방식을 쓴다. 선 분양만을 담당하는 브로커(분양 모집책)가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분양을 주선하고 성사시키는 방식이다. 이렇게 브로커를 통해 일반 주민들에게 흥정·거래·분양되는 과정에서 아파트 부동산 시장가격이 형성된다.<sup>60)</sup> 사실 북한에서 아파트 살림집 가격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특히 아파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전반적으로 북한의 물가 상승과도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 아파트 건설은 권력기관들이 자신의 기관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개별 관료들이 자신들의 개인 이익을 챙기는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또 위로부터 자신들에게 할당된 건설 할당량을 없는 능력 속에서 달성하고 한편으로 이익 역시 내리는 도시 내 주요 권력기관·기업소의 생존논리,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통해 통치 능력과 치적을 과시하려는 당국과 최고지도부의 정치적 욕구, 아파트 부동산 거래를 통해 보다 많은 차익을 남겨 부를 축적하려는 민간 자본의 경제적 욕구, 그리고 아파트 건설에 들어가는 각종 자재, 강재, 시멘트, 장비, 인력 등으로 인해 활성화된 각종 생산 및 유통시장의 관계자들이 결합돼 북한의 건설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sup>60)</sup> 엄밀하게 말해 아파트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나, 입주권이 사실상 소유권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다. 입주권은 서류상에 거주자가 기재되어 있으면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집을 사고판다는 의미는 지금 살고 있는 거주자에게 돈을 주고 그 집에 사는 것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옮기는 것이다.

## 다. 지방도시의 아파트 건설 네트워크

평양 이외의 다른 도시들에서의 도(道)나 시(市) 차원의 아파트 건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가령 평성시에 500세대 지으라는 중앙당의 지령이 내려오는 경우이다. 최고지도자 직접 지시의 경우 중앙당을 통해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에게 직접 지령이 내려간다. 도당위원회 책임비서는 도인민위원장에게 500세대 건설을 도내 공장·기업소에 할당하는 작전계획을 명령한다. 건설 할당 계획(작전계획)이 수립되면 도당 책임비서는 도내에 있는 모든 기관·기업소의 지배인과 당비서를 평성시(평안남도 도 소재지)로 소집한다. 도당 책임비서는 아파트 건설 계획의 취지를 설명한다. “장군님께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150일 전투 과업을 지시하셨으니 무조건 해야한다”는 방식이다. 각 공장·기업소 등급에 따라 해당 지배인과 당비서를 하나하나 일으켜 세워 아파트 건설계획을 할당 지시한다. 50명 미만의 7급 기업소는 제외시키지만 3급 이하 지방 공장에게도 할당량이 다 돌아간다. 북한에서 제일 많은 것이 3, 4급 기업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평성의 1급 기업소에 해당하는 시계공장, 가죽공장, 갱생공장들은 공장이 거의 돌아가지 않지만 건설 계획은 다 할당을 받게 된다. 이런 회의에 참석했던 한 탈북자는 회의장 분위기를 재판장으로 비유하고 있다.<sup>61)</sup>

“꼭 재판장 같아요. 그렇게 해서 목이 날라간 사람도 있어요. ‘못하겠다’ 하면, 조직부 간부와 저 새끼 뒤져봐라. 그 자리에서. 목 떨어져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격 받기 싫어서 그 자리에서는 다 알았다고 하고 앉아요. 할당 수행률은 앞에서는 ‘네’ 해놓고 실제로는 30~40% 밖에 안돼요. 그러면 또 불러들여요. 진척 안 된 사람은 목 떼는 거지 ‘너 하겠다고 해 놓고 못했지. 제 바꿔라.’ 지배인 목 날아가는 것은 이것이 기본이죠. 공장 생산하는 게 없는데.”(평양시 건설지배인 출신, 강○○)

61) 북한이탈주민 인터뷰(평양시 건설지배인 출신, 강○○, 2013.10.05, 통일연구원).

아파트 건설계획 할당을 받은 각 기관·기업소들은 자체 건설 자금과 자재가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은 개인들을 끌어 모은다. 시멘트, 강재, 목재 등 건설에 필요한 필수 부분을 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각 개인들을 동원한다. 이들에게 완공 이후 아파트 몇 채를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한다. 각 기관·기업소는 명의만 빌려주고 사실상 건설은 개인들이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준공검사 승인을 받게 되면 자금과 자재를 투자했던 개인들은 할당받은 아파트를 브로커들을 통해 입사증(아파트 입주 허가증)을 구매자에게 주고 팔게 된다. 대부분 내부 인테리어 없이 뼈대만 지으면 팔게 된다. 국가에서 아파트 건설 지시를 내렸을 때 얼마를 지으라고 할 뿐 누가 살라고 지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자본에 의해 지어져도 양적으로 계획량을 달성하면 기관·기업소의 계획 실적이 되고 국가 건설계획 실적이 된다.

한편 국가 지시에 의한 건설 이외에 개인들이 기획해서 짓는 아파트가 최근 많아졌는데 건설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단 형식은 도시건설사업소 명의를 빌린다. 돈과 자재가 있는 개인들이 모여 아파트 건설 기획을 하고 해당 건설부지 인근 공장·기업소에 찾아가 얘기한다. 공장·기업소는 자신들의 종업원 주택 건설 실적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 기획을 대부분 받아들여지게 된다. 해당 공장은 인민위원회에 찾아가 종업원 주택이 모자라니 인민위원회가 주택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면, 인민위원회에서는 자체로 해결하라고 한다. 이것이 곧 승인이다. 그러면 해당 공장은 개인 투자자들과 함께 예산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예산서를 들고 도시설계사업소에 가서 건설종합허가문건을 달라고 요청한다. 거기에 토지승인서, 설계예산서, 시공도면까지 도시설계사업소에서 알아서 해 준다. 도시설계사업소에는 건설감독원이 있는데 검토하고 7명이 승인 서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승인을 받고 시공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시공과정에서는 개인들이 시멘트, 강재, 목재, 인력 등을 낸다. 인력의 경우 역전이나 시장 인근

인력시장에서 구해 온다. 벽돌 지어 나르는 사람부터 미장공, 전기 수리 공, 철근 조립할 줄 아는 사람 등 기술자들을 끌어온다. 일에 따라 임금도 다르다. 아파트 건설 관련 노동력 시장이 형성돼 있는 것이다.<sup>62)</sup>

다 지으면 준공검사 관련 기관 사람들이 나오는데 뇌물을 주고 합격 도장을 받는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면 해당 명의를 빌려준 공장에게는 형식상 몇 세대 분만 주고 나머지는 투자했던 개인들에게 돌아간다. 명의를 빌려준 공장은 실적만 갖게 되는 방식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액수에 따라 서로 아파트를 나눠 갖게 된다. 그리고 아파트를 파는 것은 전문 거간, 브로커들에게 맡긴다.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브로커들은 인민위원회 주택부에 가서 주택지도원에게 1,000달러를 주고 입사증을 떼어 와서 구매자에게 준다. 가령 구매자에게 만 달러로 팔면, 결국 9,000달러를 벌게 되는데 이 중 일부를 브로커에게 준다.<sup>63)</sup>

이와 같은 아파트 건설 과정을 통해 아파트 건설 네트워크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국가의 대리인으로서 도시 관료들은 위로부터의 계획 지령과 자신의 실적을 쌓기 위해 지역 자본들을 동원한다. 이들 도시 내 자본가들은 시장에 기반을 둔 사람들로 초기 시장화 과정에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굴려 자본을 형성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자본 증식 방법은 당·정·군 산하 무역회사에 이름을 걸고 무역을 통해 이윤을 챙기는 방식, 또는 주택 거래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들은 주택 건설에도 직접 투자하고 참여하는데 아파트는 그 중 가장 큰 규모의 투자에 해당한다. 이들의 아파트 건설은 국가기관의 승인과 명의로 이루어지고 국가기관의 계획수행을 대체 달성해 준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이해와 배치되지 않는다. 시장을 통해 형성된 민간 자본이 국가계획을 대행해 줌으로써 민간 자본은 이윤을, 국가는 계획수행 실적을 챙긴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62) 북한이탈주민 인터뷰(평성출신 속도전돌격대 경험자, 조○○, 2013.04.11, 통일연구원).

63) 북한이탈주민 인터뷰(평성출신 1급 운전사, 최○○, 2013.10.07, 통일연구원).

목적을 갖는다.

따라서 아파트 건설은 기본적으로 지역 기반 경제를 통해 이윤을 찾는 사람들과 관료들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계획수행 실적을 대항해 주는 대가로 각종 시장 활동이 묵인되거나 오히려 조장·확산된다. 사실상 아파트 건설은 국가와 민간 자본이 결합한 시장화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계획과 시장의 구분은 모호하다. 다만 결과는 다중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국가가 얻는 계획의 수행실적이라는 공식적인 수치(건설조립액), 다음은 건설에 투자한 자본가들의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윤, 셋째는 아파트 건설에 동원된 각종 인력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통해 발생한 분배, 넷째, 건설에 동원된 시멘트, 강재, 목재 등의 시장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아파트 건설 및 거래시장은 국가계획, 각종 참여자들, 각 자재시장 등과 연동돼 북한 경제를 작동시키는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히고 설킨 아파트 시장은 시장의 사회-기술적 네트워크와 관료들의 위계적 구조가 결합된 형태이며, 이런 결합은 곧 '아파트 건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시장과 권력의 결합: 김정은식 경기부양

#### 가. 도시 미화 프로젝트와 건설 시장 활성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무연탄 국제시세 하락, 북·중 무역규모의 감소, 가뭄, 고강도 대북제재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쌀값과 달러 환율 등에서 일정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계속되는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드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이런 안정세는 상당 부분 이해하기 힘든 현상으로 보인다. 다만 체제 전반에 걸쳐 시장이 경제를 안정화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양시를 비롯한 대도시에 늘어난 자동차, 핸드폰, 상점 등에서 관찰되는 주민 소비 수준의 향상,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시장의 면적 등은 시장 시스템이 북한에 일정 수준 안착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와 시장의 결합 수준이 보다 높아지면서 시장에 대한 공식·비공식적인 허용 폭이 커지고 도시 시장이 확장되고 도시 건설시장에 ‘붐’이 조성되면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시장 부문 중에서 일반적인 상품 교환시장,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도 큰 몫을 차지하지만 건설 부문의 활성화 수준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도시에서는 국가와 민간 자본이 결합한 건설 ‘붐’이 조성돼 도시 경관을 바꾸는 것은 물론 자재, 인력, 노동 등 각종 시장의 활성화로 나타나고 있다.

각종 정치행사 일정에 맞춰 이뤄진 대규모 토목건설, 거리 조성, 아파트 건설 등은 ‘사회주의문명국’의 성과로 선전되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시장의 민간 자본과 국가가 결합해 만들어낸 일종의 ‘김정은식 경기부양’에 해당한다. 대규모 살림집 및 공공 건설은 단순히 전시적인 성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일정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은 2012년 김정일의 ‘유훈’이라며 도시 미화사업을 평양에서부터 시작했고 2013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지속되는 경제난 속에도 전국에 유원지와 공원 등의 국가 건설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나무 심기, 잔디 깔기, 도로 주변 정돈 등을 위한 동원이 일상화되었다. 도시 미화를 명분으로 한 동원으로 주민들의 고통은 상당히 컸지만, 도시미화 사업으로 건설과 관련된 투자의 수요는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돈주’들은 기존에 공업품이나 식량 관련 상품 거래로부터 챙기던 수익에서 ‘주택’이라는 상품 시장을 통한 보다 큰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명분을 바로 도시 미화사업으로부터 발견했다고 할 수 있다.

상품 가치가 높은 아파트와 상점의 신규 건설은 중앙 정부나 도·시 당국의 입장에서는 건설 실적이자 도시 재개발의 의미를 갖는다. 도·시 당국이

쉽게 건설 허가권과 명의를 대여해 주는 것을 통해 돈주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면서 건설 부문으로 대규모 민간 자본이 몰리게 되어 건설 붐이 일어났고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과거에도 부동산 관련 소위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데끼’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활동을 했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이들의 수도 증가하고 보다 전문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통 이들을 주민들은 ‘집장사’, ‘아파트 지어서 돈을 버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 시장의 활성화는 관련된 모래 시장, 시멘트 시장, 노동(인력) 시장의 수도 팽창시켰다.

## 나. 아파트 건설 이권과 권력기관의 경쟁

현재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주요 아파트 건설은 경제외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권력기관들이 독점적으로 이권을 장악하고 있다. 특히 인민 무력부, 인민보안부, 청년동맹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런 관행은 1980년대에 특권기관들이 건설 ‘와크’를 통해 건설 부문의 특수을 기관이익으로 전용하고 계획경제를 침식하는 과정에서 구조화되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당 조직지도부 행정 부문이 산하에 거느린 기관들이 광범위하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아파트 건설에 특수한 이권영역을 형성했다.<sup>64)</sup>

특히 인민보안부가 평양의 주요 아파트 건설을 통해 독점적으로 이익을 챙겨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민보안부는 국내 치안을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담당 부분은 보다 포괄적이다. 인민보안부에

<sup>64)</sup> 당 행정부 산하 기관을 보면, 조선국영보험총회사(대외보험총국), 호위총국, 군수동원총국,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재정국, 7총국, 8총국), 1여단, 중앙검찰소, 수도건설총국, 2호지도국, 727지도국, 조선원예총회사 등이 있다. 박형중·최사현,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p. 100; 장성택은 1980년대 88 서울올림픽에 대응하여 건설하였던 광복거리 건설지휘부 총사령관이었으며 18만 명의 건설돌격대를 지휘하며 5만 세대 주택 건설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때를 통해 장성택은 비경제단위 특수 건설계획이 갖는 권력과 이권을 이미 상당히 경험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는 보안부문(치안, 교통, 소방 담당) 이외 도로건설, 시설경비를 담당하는 인민내무군이 군 체계와 별도로 배속되어 있다.<sup>65)</sup> 그 중에 인민내무군은 7총국(대피소 등 건설), 8총국(도로, 교량관리), 9국(특각 경비), 11기동대(소개용 운송자재 관리), 324경비여단, 평양지하철도 운영국, 225지도국(금 채취) 등 부서들이 편제되어 있다. 특히 이 중 도로, 교량 등 건설·관리를 담당하는 8총국은 건축 전문가와 건설에 동원 가능한 군인이 약 4만여 명 정도의 규모로 단연 압도적이다.

2010년 이후 각 권력기관별로 건설사업을 통해 기관 이익을 챙기려는 움직임이 만연하기 시작했다. 조직적인 최고의 건설 능력을 갖춘 8총국을 산하에 두기 위한 권력기관들 사이의 경쟁과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인민보안부와 인민무력부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인민보안부가 8총국 인원을 평양시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거 투입하여 엄청난 자금을 확보하는 등 돈벌이에 성공하자 2011년 초 인민무력부가 김정일에게 군용도로 건설·보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건의하면서 8총국을 흡수했다. 이에 인민보안부가 강하게 반발해 오다가 김정은 등장 이후 8총국을 인민내무군 소속으로 환원시키는 데 성공하게 된다.

이렇게 인민무력부로부터 인민보안부로 8총국을 환원시킨 배경에는 김정일과 장성택의 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sup>66)</sup> 김정일은 장성택을 통한 당 조직지도부와 군부에 대한 견제, 김정은 후계구도 과정에서의 후견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장성택에게 힘을 실어 주고 있었다.<sup>67)</sup> 장성택 당 행정부장 관할 하에 있는 인민보안부가 8총국을 가져오는 것은 이

<sup>65)</sup> 2014년 5월 18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평천구역 아파트 붕괴사고 소식을 전하며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선우형철 조선인민군내무군 장령, 차희립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영식 평천구역당위원회 책임비서 등 관계 부문 책임일꾼들이 피해자 유가족들과 평천구역 주민들에게 위로와 사과를 했다고 전한 바 있다.

<sup>66)</sup> 박형중, “최용해 좌천의 배경과 의미,”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4-05, 2014. 05.14.), p. 2.

<sup>67)</sup> 위의 글, p. 2.

런 맥락 속에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013년 2월에 인민보안부장이 된 최부일은 이미 2012년 11월에 장성택이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는 장성택계의 사람으로 분류된다. 2013년 12월 장성택 숙청 이후 최부일은 인민보안부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장성택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2010년부터 평양시당 책임비서를 맡아왔던 문경덕은 해임·숙청되었다.

그 배경 중 하나는 아파트 건설 이권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평양시 아파트 건설 이권에 장성택 및 장성택계 간부들, 인민보안부 간부들이 깊이 개입해 왔었음을 짐작하게 한다.<sup>68)</sup> 그 증거로 장성택 처형 이후 2014년 8월 김정은은 대동강타일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타일공장 이름을 천리마타일공장으로 바꿀 것을 지시하였으며 공장의 운영권을 군부에 넘겼다는 소식이다. 이 타일공장은 장성택이 당 행정부장으로 있으면서 2009년 7월 건설한 것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역에서 건설 붐이 일면서 고급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이었다. 장성택의 심복 장수길이 직접 타일공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타일이 평양시 아파트에 공급되어 이익이 상당히 컸던 공장이었다. 이 타일공장은 장성택 판결문에서 언급됐던 곳으로 장성택이 수장으로 있던 당 행정부가 담당했던 곳이다.<sup>69)</sup>

## 다. 건설정치를 위한 조직 정비

김정은 정권에서 건설사업을 강조하면서 건설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교육체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김일성종합대학(1946년 10월 1일 설립)은 타대학과 달리 내각 교육성이 아닌 중앙당 과학교육부 직속으로 11개 학부 및 7개 단과대학으로 편성하는데, 11개 학부는 사회과학

68) 장성택계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 후임으로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이었던 군부 출신 김수길(64)이 임명되었다.

69) “북 김정은, ‘장성택 연루 공장’ 이름부터 다 바꿔,” 『연합뉴스』, 2014.08.04.

분야 4개 학부(정치경제, 역사, 철학, 외국어)와 자연과학 7개 학부(수학, 원자력, 물리, 화학, 생명과학 등)이고 7개 단과대학은 문학, 법학, 컴퓨터과학, 재정대학과 평양의과대학, 평양농업대학, 계응상대학(황북 사리원 소재 농업대학)이다.

최근에는 북한 내 건축 붐을 타고 현대적 건축과학 분야의 인재 양성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건축분야 최고 명문인 ‘평양건축대학’을 김일성종합대학으로 통합하였다. 이 같은 단과대학 통합 추세는 김일성종합대로서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 양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고, 통합되는 단과대학은 학교 위상이 높아져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건설분야의 발전을 독려하기 위해 ‘평양건축종합대학’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정은은 “건설은 강성국가 기초를 다지는 주요 전선”이라고 강조하면서 문수놀이장, 마식령 스키장 등 각종 건설 치적 쌓기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2년 1월 ‘평양건설 인재대학’ 개교 60주년을 맞아 종합대학으로 승격시켜 ‘평양건축종합대학’으로 개명하고 평양 동대원구역에 부지 2만여 평을 확보, 시설을 확장하고 유학, 해외견학을 전담하는 ‘대외교류센터’도 신설하였다. 특히 김정은은 2013년 11월 동 대학 방문시 스스로 ‘명예총장’을 자처하며 대학 발전 지원을 재강조한 바 있다.



### Ⅲ. 권력의 시각적 경관화와 통치 테크놀로지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17년 1월 9일 ‘2016년 10대 조선 총격’ 제하로 지난해 김정은 치적 10가지를 선정하여 선전한 바 있다. 10대 성과 중 평양시 ‘여명거리’ 건설(2016년 3월 착공)을 선정하였다. 당시까지 아직 완공이 안된 건설을 성과로 넣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여명거리는 7개월 만에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 아래 진행되었다. 2016년 3월에 여명거리 조감도가 공개되고 2016년 4월 초 착공하여 그해 10월 10일 완공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북부지역 수해복구 등으로 인해 지연되어 결국 2017년 4월, 1년 만에 조성된 것이다. 단 1년 만에 큰 규모의 여명거리를 조성하는 데 전 국가적 에너지를 쏟고 ‘빅 이벤트’라는 이름으로 외신에 공개한 데에서 김정은 정권의 어떤 조바심을 감지하게 된다.

김정은 집권 6년 동안 조성된 거리는 창전거리,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등 평양시에만 무려 5개이다. 김정일 시기 창광거리, 광복거리, 통일거리 등에 비교하면 짧은 통치 기간 동안 많은 거리를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초 이후 사실상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이뤄지지 않다가 2012년에 창전거리가 조성됨으로써 약 20여 년 만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 김정은 시기 대규모 아파트 건설의 특징은 대체로 10월 10일 당 창건일에 맞춘 완공이 많다는 점이다. 김정은 시기의 건설사업들이 주로 정치적 상징성과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정은 정권 들어 전 국가적 관심을 쏟고 있는 대규모 거리 및 아파트 건설사업은 정치경제적인 이익 차원에서도 의미를 갖지만, 기본적으로 통치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통치를 용이하게 하거나 통치력을 확장하고 전시하는 차원에서의 ‘통치의 시각적 경관화’가 그 핵심이다. 본 장에서는 대규모 도시 거리 조성 및 아파트 건설이 통치력을 확장하고 전시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사회주의문명국’론이 내장하고 있는 통치 테크놀로지 차원의 의미를 살펴본다.

# 1. 사회주의문명화와 권력의 도상학

## 가. 사회주의문명화와 권력의 도상학

### (1) 사회주의문명화와 문명의 척도로 건설

김정은 집권 6년 동안 통치 상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사회주의문명국 건설’ 담론에 입각한 건설·관광·체육 등에서의 각종 성과와 치적을 과시하는 행보이다. ‘사회주의문명국’은 2013년 신년사부터 등장하여 최근 대부분의 담론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사회주의문명국은 모든 건설,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인민들이 향유하는 문명 수준을 높이자는 담론이다.<sup>70)</sup> ‘사회주의문명국’론은 최근에 물질문명, 도덕적 품성, 문화지식, 건강한 체력 등으로 보다 구체화된 내용으로 체계화되고 있다.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이라는 상위 목표 속에 건설·체육·관광의 3대 부문을 각별히 강조해 왔다.

도시부문 건설이나 체육 성과처럼 실제 일상생활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향상’의 모습을 통해 주민들이 체제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담론으로 볼 수 있다. 통치 테크놀로지 차원에서 본다면, 물질적으로 공간상에 문명화를 구현하는 것과 주민들의 의식 및 육체를 문명화하는 것으로 크게 나뉘 볼 수 있다. 이 둘 모두 공간과 인간을 통치 대상화하여 문화적 수단을 통해 규율화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게는 공간과 주민을 대상화하는 통치자의 관점, 그리고 통치자의 통치력이 투사되는 공간으로서 도시 건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매체 및 문헌을 살펴보면, ‘사회주의문명국’이란 곧 북한의 국가

<sup>70)</sup>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사회주의문명국입니다.” “김정은 신년사,” 『조선중앙통신』, 2013.01.01.

적 ‘체모’를 의미한다. 사회주의문명국이란 용어에 상투적으로 따라다니는 말이 바로 ‘체모’이다. 가령 “미래과학자거리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훌륭히 일떠섰을 때”<sup>71)</sup>와 같은 식이다. 크게는 여명거리나 미래과학자거리와 같은 대규모 거리 조성부터 작게는 기존 공공건물에 대한 리모델링(개건)까지 새로운 건물이나 건설에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란 말이 사용된다. 용법을 보았을 때, 사회주의문명국은 시각적인 도시적 경관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북한 주요 공식매체에서도 대부분 새로운 건설물이나 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이 용어를 쓰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매체가 언급하고 있는 사회주의문명국 담론은 기존에 북한에서 사용했던 특정 사상 관련 용어처럼 일정한 체계나 개념적 틀로 제시되면서 사용되고 있지 않다. 거의 모든 정치, 군사, 경제, 사회 관련 사안에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모습으로 사회주의문명국이란 용어가 관용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사회주의문명화 또는 사회주의문명국은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새 선경들이 펼쳐지고” “사회주의문명국의 휘황한 령마루”<sup>72)</sup>로 가는 과정으로 표현된다. 또는 “황홀한 불장식(네온사인, 조명효과)으로 단장된” 도시 거리를 칭찬하며, “대상의 특성과 주변 환경에 잘 어울리게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거리의 밤풍경을 아름답게”한 것을 ‘사회주의선경’,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변모한 것으로 꼽고 있다.<sup>73)</sup> 김정은은 2016년 신년사에서 “건설은 국력과 문명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는 김정은 시대를 ‘건설의 대변영기, 새로운 문명개화기’로 규정했다.<sup>74)</sup> 결국 사회주의문명국은 곧 건설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71) “다시 한번 비약의 큰 걸음을 내딛는 개혁의 대오,” 『노동신문』, 2016.01.12.

72) “행복의 높이, 문명의 높이,” 『노동신문』, 2016.01.24.

73) “이채롭게 펼쳐진 불장식,” 『노동신문』, 2016.01.03.

74) “행복의 높이, 문명의 높이,” 『노동신문』, 2016.01.24.

## (2) 건설의 대번영기 선언이 갖는 통치 전략적 의미

김정은은 평양시 10만 세대 건설공사와 관련, 2010년 평양 중심인 창전거리 아파트 건설 및 거리 정비를 최우선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2010년이면 표면적으로는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한 시점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공식 후계자로 경제사업 전반에 관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2010년 10월 경 당 행정부 대외건설지도국 및 내각 교육성 등 10개 중앙기관에서 인민극장과 아파트 건설에 집중했다. 24~40층 아파트 14개 동, 약 5천여 세대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12년 4월 초 내각 수도건설위원회는 창전거리 아파트들의 외장공사 완료 후 내장공사는 10층 정도만 마친 상태에서 김정은에게 완공되었다고 보고한다. 2011년 5월 경 공사가 지지부진하자 수도건설연합지휘부는 김정은을 방침을 받아 평양 대학생을 유급시키고 이 건설 공사에 동원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2012년 1월 및 2월 2차례 현장 방문하여 공사를 독려했다. 또한 김정은은 2012년 4월 8일 장성택 및 수도건설위원장 등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 아파트 10개 동의 1층부터 최고층까지 직접 점검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부실시공 등을 지적하면서 7월 27일까지 완벽하게 끝내라는 지시를 한다. 다음날 당 조직지도부가 공사 참여 기관장들을 불러 김정은의 지적과 지시사항을 하달한 이후 각 기관은 돌격대 추가 투입 및 철야 작업으로 7월 27일 이전에 완공을 하게 된다. 김정은은 이 지시 이후에 5월 25일, 5월 31일, 7월 3일 등 3차례 더 현장을 방문하였고, 7월 27일 부인인 리설주와 함께 창전거리 아파트 입주 가구를 불시에 방문하기도 했다.

이런 김정은의 행동은 아파트 건설에 대해 집권 초기부터 통치 핵심사안 중 하나로 많은 신경을 썼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집권 초기 통치 차원에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갖는 의미가 컸음을 보여준다. 주목할 부분은 2013년 이후 사회주의문명국이란 용어가 건설부문의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각종 대규모 건설사업의 실적을 김정은의 사회주의 강국, 문명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선전하며 제7차 당대회, 최고인민회의, 김정일 사망 5주기 등에 맞춰 마무리할 것을 재촉하며 사회적 동원을 활발하게 진행한 바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대규모 도시 거리 조성사업이 강조되면서 건설 시장과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나. 핵·미사일 고도화와 사회주의문명화

김정은은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및 미국의 고강도 대북제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2016년 3월 18일 여명거리 건설을 선포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이 선포 내용의 핵심은 여명거리 건설이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이라는 것이다. 적대세력의 “제재압살책동을 짓부시고”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기 위해 거리를 조성하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sup>75)</sup> 북한식 설명으로 본다면, 여명거리 조성은 대북제재에 대한 일종의 대응 또는 응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와 정권, 인민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간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여명거리가 상징화되고 있는 것이다.

표 III-1 김정은 집권 이후 주요 건설사업

구분	건설사업 *원공시점 기준
2012	희천1호·희천2호발전소(4/5)
	인민극장(4/9)
	인민군 무장장비관(4/14)
	영웅거리 고기상점(4/25)
	창전거리(5/24)
	능라인민유원지(7/24)

75)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자력자강으로,” 『노동신문』, 2016.03.18.

구분	건설사업 *완공시점 기준
	<p>           통일거리운동센터(9/6)            평양민속공원(9/6)            만경대유희장·대성산유희장(10/6)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11/2)            류경원 인민야외방상장/롤러스케이트장(11/2)         </p>
2013	<p>           대성산종합병원(1/19)            인민군열사묘(7/24)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7/26)            과학자살림집(8/5)            은하과학자거리(9/7)            류경구강병원(9/22)            평양체육관(9/13)            옥류아동병원(10/4)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10/6)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자살림집(10/9)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10/9)            문수물놀이장(10/13)            미림승마구락부(10/20)            마식령스키장(12/30)         </p>
2014	<p>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합숙소(4/29)            1월8일수산사업소(4/30)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5/1)            용문술공장(5/27)            고산 과수농장(7/23)            조선인민군 제6 2 1호 육종장(8/20)            김익철일용품공장(10월8일공장)(8/30)            위성과학자주택지구(10/13)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10/16)            연풍과학자휴양소(10/21)            평양육아원, 애육원(10/25)            5월 1일경기장(10/28)         </p>
2015	<p>           평양시 버섯공장(1/9)            어분사료공장(3/23)            원산시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원, 중등학교원(6/1)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6/24)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6/29)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7/2)            평양양로원(8/1)            평양강냉이 가공공장(8/31)         </p>

구분	건설사업 *완공시점 기준
	종합봉사선 무지개호(9/27)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10/3) 라선시피해복구(10/7) 미래과학자거리(10/20) 과학기술전당(10/27) 대동강 이동식 그물우리양어장(11/17) 만경대학생소년궁전(11/30) 평천혁명사적지(12/9)
2016	청년운동사적관(1/19)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1/22) 민들레학습장공장(4/18)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4/22) 중앙동물원(5/20) 청춘거리 체육촌(6/1) 만경대소년단야영소(6/3) 평양중등학교원(7/2) 평양자라공장(7/5) 인민군 어구종합공장(7/29) 대동강과수종합농장(8/17) 보건산소공장(9/14) 류경안과종합병원(10/17) 용악산비누공장(10/28) 5월27일수산사업소(11/16)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12/6)
2017	평양 가방공장(1/4) 류경김치공장(1/11) 금산포젓갈가공공장, 금산포수산사업소(1/14) 평양초등학교원(2/1) 강동 정밀기계공장(2/6) 삼천메기공장(2/20) 조선혁명박물관(3/27) 여명거리(4/12) 치과 위생용품공장(6/19) 류원신발공장(10/18)

자료: 저자 작성

김정은 집권 이후 조성된 거리와 중요 건설물의 건설 ‘타이밍’과 핵·미사일 고도화의 주요 활동,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은 서로 기묘한 방식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대규모 도시 거리 조성사업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치적으로 쌓기 위한 전시적 목표만 있는 것은 아니다. 통치 차원에서 보면 주민들을 통제하는 기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대북제재로 인한 외부로부터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주민들의 사상적 이완을 틀어쥐는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III-1 대북제재와 주요 평양시 건설

2012년	정전거리 완공				장거리미사일	
	6월 20일				12월 12일	
2013년	대북제재 2087호	3차 핵실험	대북제재 2094호	은하과학자거리	체육인살림집	김일성종합대 교육자살림집
	1월 22일	2월 12일	3월 7일	9월 11일	10월	10월 9일
2014년	김정숙방직공장합숙소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김책공대 교육자살림집	
	5월 6일			10월 17일	10월 20일	
2015년	창전남새협동농장 살림집			미래과학자거리		
	7월 1일			11월 3일		
2016년	4차 핵실험	여명거리 건설 선포	평양중등학교	5차 핵실험	대북제재 2321호	
	1월 6일	3월 18일	7월 18일	9월 9일	11월 30일	
2017년	김정숙제사공장합숙소	여명거리	대북제재 2356호	화성-14형	6차 핵실험	대북제재 2375호
	1월	4월 13일				

자료: 저자 작성

## 2. 김정은 정권 도시건설 속 권력의 도상학

### 가. 도시와 권력

보통 기존 연구에서 사회주의 도시를 분석할 때 접근하는 방식은 특정 지도자, 권력기구, 제도, 담론 등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시나 도시 건설물이라는 결과를 지도자의 의도와 목적 차원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도시나 도시 건설이 어떠

한 사회-기술적 연결과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가를 미시적으로 기술하는 데는 미진했다. 다시 말해 그것이 어떻게 수행되는가, 즉 그것을 수많은 행위자들이 결합된 사회 - 기술적 연결망의 차원에서 파악하고, 그것이 도시라는 하나의 이름과 은유를 통해 어떻게 단순화되어 세상에 ‘사회주의’를, ‘국가’를, ‘체제’를, ‘지도자’를, ‘일상’을 번역해 내는가 하는 ‘수행성(performativity)’<sup>76)</sup>의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수행성은 개인이 또는 도시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즉, 발화(speech act) 자체가 갖는 수행적 차원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런 발화는 담론, 사물, 기호, 제도, 법, 기술, 과학, 상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들 모두는 사회-기술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다. 각종 도시 관련 통계 숫자 역시 하나의 정치적 힘이자 자신을 구성하는 발화로서 도시를 특정한 방향으로 수행하도록 한다.<sup>77)</sup> 결국 도시는 수많은 사회-기술적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통해 수행되는 실재들(realities)인 것이다.

지도자의 영광을 반영하고 태양왕처럼 그를 고취하고 중심이 되게 하

<sup>76)</sup> ‘수행성(performativity)’ 개념은 오스틴(J. L. Austin)이 『말과 행동』(How to Do Things with Words) (1955)에서 발화행위 이론의 차원에서 개념화한 바 있으며, 데리다(Jacques Derrida)가 “기호, 사건, 맥락 (Signature, Event, Context)”에서 오스틴의 수행성 개념을 해체적으로 재구성한 바 있다. 본격적으로 수행성 개념을 재개념화하여 젠더연구에 사용한 것은 버틀러(Judith Butler)의 『젠더 트러블』(Gender Trouble)에서이다. 버틀러는 젠더연구를 통해 젠더는 무대 위에서 배우가 행하는 퍼포먼스처럼 언제나 행위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수행성은 행동을 유발하는 언어를 뜻하는 수행문과 같은 것이다. J. L. Austin, *How to do Things with Word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Jacques Derrida, “Signature Event Context,” in *A Derrida Reader: Between the Blinds*, ed. Peggy Kamuf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1); 주디스 버틀러 지음·조현준 옮김, 『젠더 트러블』(서울: 문학동네, 2008).

<sup>77)</sup> 남영호에 따르면 숫자는 엄청난 정치적 힘을 지니는데 도시를 각종 양적 지표로 보여줌으로써 도시를 계산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장소로 만들어주며, 숫자화 과정 속에 있는 정치를 비정화 시켜준다. 그는 소비에트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도시의 규모(인구와 면적)와 도시의 숫자였다고 본다. 그런 주장에 따른다면 숫자는 기호 이상의 의미를 생산하고 도시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남영호, “사회주의 도시의 상투성,” 『중소연구』, 제35권 4호 (2012), p. 219.

는 인공물이 분포된 영토처럼 어떻게 국가 통치를 다양한 물질적 요소들을 통해 도시 공간 속에서 드러내 보이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78)</sup> 가령 사회주의 도시들이 보여주는 ‘권력에 대한 도상학적 기호들’과 ‘고정되고 위계적이며 기념비적인 질서’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권위적인 대칭구도와 두꺼운 벽, 장식이 없는 규칙적인 배열 등은 고전주의적 도시 건축물과 유사하고<sup>79)</sup> 그것들이 전하려 했던 지도자들의 영원불멸성에 대한 욕망은 사회주의 도시들을 거대한 기념비의 제국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1930년대 모스크바 도시 건축이 정치신학에 가까운 유사종교적 사회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기호의 구축”에 몰두하던 때부터 사회주의 도시에서 일반화된 하나의 경향으로 나타난다.<sup>80)</sup>

이런 측면에서 사회주의 도시는 물질화된 기호들의 세계이자 공간이다. 도시 공간을 조직화하는 데는 군대와 같은 정확한 건설동원 절차와 매뉴얼, 혁명 전통과 승리, 건설과 같은 국가 성취의 기호화, 통치를 물질적으로 구현하는 도시계획 설계도면, 지도제작법, 수력학의 엔지니어링, 이국적인 식물학, 회계와 재정 등이 동원된다. 바로 이 제의적인 국가 및 도시 디스플레이를 위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동원, 배열, 조립된다. 도시는 국가의 성취를 디스플레이하는 하나의 장소, 사회-기술적 네트워크가 물질적으로 구현되는 공간인 것이다.<sup>81)</sup> 결국 사회주의 도시는 이런 물질, 과학, 기술, 상징을 통해 접합되고 응고되어 하나의 도시성

78) 가령 정치 지도자의 조각상을 인민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정부권력과 감시의 손길을 상기시키는 장치로서 물질화되었고, 사회주의 영웅주의의 상징물, 레닌이 주도한 전력화 캠페인이 갖는 중앙권력의 통합 상징 등에 대해서는, 토비 클락 지음, 이순령 옮김, 『20세기 정치선전 예술』 (서울: 예경, 2000), pp. 75~102 참조.

79) 김영나, “유토피아의 신기루: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사회주의 도시와 모뉴먼트,” 『서양 미술사학회논문집』, 제21집 (2004), p. 172.

80) 이지연, “기념비와 스탈린 신화: 권력의 재현적 공간으로서의 소비에트 예술과 삶,”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엮음, 『유토피아의 환영: 소비에트 문화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 pp. 272~285.

81)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E. Nordlinger, *The Autonomy of the Democratic Stat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참조.

(urbanity)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도시는 인간의 행위만이 이루어지는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라 통치를 위한 사회-기술적인 물질성이 구성되는 장소인 것이다.

## 나. 통치대상으로서 도시에 대한 가독성

### (1) 도시에 대한 가독성의 욕구

거리 조성과 대규모 살림집 건설에 있어 김정은 정권이 김정일 시대와 갖는 차이점은 도시의 시각적 경관화에 보다 많은 집착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리 조성 and 살림집 건설 전 과정을 매체와 다양한 영상을 통해 공개하며 시각적으로 경관화하는 데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이런 도시의 경관화 과정 속에서 지도자를 항상 건설 이미지와 파노라마의 중심에 놓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거리와 건설물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부감(high angle)’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가령 2015년 2월 15일 미래과학자거리 건설 현장을 김정은은 전용 비행기를 타고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연출을 한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김씨 일가 통치 역사에서 최고지도자가 상공에서 건설 현장을 내려다보는 일종의 ‘비행 현지지도’를 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현지지도를 다룬 노동신문은 여러 장의 부감 사진(high angle shot)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비행기 안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사진 Ⅲ-1 김정은 미래과학자거리 건설 현장 비행 현지지도 사진



자료: 2015년 2월 15일 미래과학자거리 건설 현장을 비행기를 타고 살펴보는 김정은 (『노동신문』, 2015.02.16.)

이런 도시나 건설 현장을 내려다보는 부감 사진이나 김정은의 도시 조망 모습은 집권 초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래 <사진 Ⅲ-2>는 본격적으로 집권한지 6개월 정도 지난 2012년 5월 31일에 찍은 사진으로 아버지 김정일 정권 시기 시작된 창전거리 살림집 완공을 맞아 고층 아파트에 올라 평양 시내와 대동강을 내려다보는 장면이다. 젊은 지도자의 웃음 띤 얼굴이 다소 어색해 보이지만 통치자로서의 이미지를 평양 시내를 조망하는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 인상적이다.

사진 Ⅲ-2 김정은 창전거리 살림집에서 시가지 조망 사진



자료: 2012년 5월 31일 창전거리 살림집에서 시가지를 조망하고 있는 김정은 (『노동신문』, 2012.06.01.)

이런 지도자의 부감 장면은 전통적으로 자신의 성과 또는 통치 대상으로서 도시를 지배하는 자의 자신감과 통치자로서의 위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상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내려다보는 지도자와 위로부터 건설 현장과 도시를 파노라마식으로 프레임에 가득 채워 보여주는 방식은 이후 김정은 건설 현장 방문 사진의 대부분에서 발견된다. 아래 <사진 Ⅲ-3>은 2017년 1월 여명거리 건설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찍은 사진들인데, 여기서는 상공에서 찍은 부감과 로우 앵글(low angle), 길게 사선 찍기 등 건설 현장을 스펙터클하게 연출하는 모든 기법이 동원되고 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압도당하게 하는 이 모든 앵글들의 사진은 도시를 통치의 대상으로서 시각적으로 경관화하는 통치자의 관점을 대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진 Ⅲ-3 김정은의 여명거리 현지도와 건설 현장을 담은 사진



자료: 2017년 1월 26일 김정은의 여명거리 현지도 시 건설장을 찍은 노동신문 사진  
(『노동신문』, 2017.01.26.)

통치자들은 도시를 더 통치하기 쉽고 번영하고 건강하고 건축적인 측면에서 인상적인 장소로 만들고 싶어 한다. 그것은 발전하고 있다는 총체적인 비전 제시, 합리적 통제의 구축, 공간적 질서라는 통치자의 열망을 반영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간을 조직화하고 그것을 연결시키며, 또 그것을 측량과 배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모든 통치자가 원했던 것이다.<sup>82)</sup> 그런 측면에서 통치자의 관점은 길거리에서보다는 위에서 내려다 볼 때나 밖에서 볼 때 질서가 아주 뚜렷하게 자신의 통치 대상을 인지하게 된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자 하는 욕구, 일종의 신의 시각이나 절대 통치자의 시각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정은이 거리 조성 과 대규모 살림집 건설에 집착하는 이유는 도시에 대한 가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구, 자신이 통치자임을 알리는 통치의 시각적 경관화 욕구 차원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sup>82)</sup> 제임스 C. 스콧 지음, 전상인 옮김,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서울: 에코리브로, 2010), p. 101.

## (2) 통치 권력의 안정화와 김정은 사진의 도상학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도 사진 중 건설 현장 방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를 표현하는 사진의 구도와 앵글에서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집권 이후 김정은의 권력 안정화 수준에 따라 사진에서 그를 표현하고 이미지화하는 방식에서 모종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변화는 단순히 그의 권력 안정화 수준에 따라 사후적으로 그의 위상이 사진에 반영된 결과물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의 위상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통치자로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그리고 자신의 성향을 표현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일 수도 있다.

우선 아래 <사진 III-4>를 보면, 집권 직후의 현지도 모습인데 김정은은 밝게 웃고 있는 듯 보이지만 어딘가 표정과 풍채가 위엄이 있거나 여유로워 보이기보다는 가볍고 긴장된 모습이다. 주위엔 당시 당 행정부장이었던 실세 장성택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는 땅을 바라보며 여유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 배경과 구도 역시 스펙터클한 건설 현장을 드러내 보이기보다는 다소 황량하고 쓸쓸하게 보이는 낮은 양쪽 건물 사이에 한 무리의 일행이 걷는 모습을 연출하는데 그치고 있다. 사진의 앵글도 정면 솟으로 김정은은 한 두 걸음 앞에 서서 걷지만 다른 수행자 속에 묻혀 도드라져 보이지 않는다.

사진 III-4 김정은의 능라인민유원지 개발사업 현지지도 사진



자료: 2012년 5월 2일 능라인민유원지 개발사업 현지지도 (『노동신문』, 2012.05.02.)

아래 <사진 III-5> 역시 집권 직후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요해’하는 사진으로 노동신문에 게재되었는데, 앞서와 마찬가지로 정면 솟으로 그는 여러 수행자 속에 묻혀 지도자로서 도드라진 구도로 포착되지 않는다. 모자를 쓰고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 앞선 사진보다 다소 여유롭게 연출되긴 했지만 앵글 자체에서 다른 수행자들과 일렬 구도 안에 위치하고 있어 지도자로서의 품모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사진 배경도 장성택은 최룡해와 함께 사진 왼쪽에서 수행하고 있어 연령차의 대비가 두드러진다. 사진 배경 구도도 왼쪽 유희장 기구와 오른쪽 낮은 가로등 사이의 좁은 보행로를 걷는 폐쇄적인 구도의 라인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 III-5 김정은의 개선허년공원유희장 요해 사진



자료: 2012년 5월 25일 김정은의 개선허년공원유희장 요해 장면 (『노동신문』, 2012.05.25.)

한편 아래 <사진 III-6> 역시 김정은의 위상을 암시하거나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사진 III-5>와 같은 날 찍은 사진인데,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생전 마지막으로 심혈을 기울였던 ‘창전거리’의 현지지도 장면이다. 사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선 모양으로 펼쳐진 창전거리 살림집(아파트)를 웅장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작 김정은의 시선과 표정은 이런 웅장한 배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성과에 만족하는 환한 웃음이 아닌 다소 어색한 표정에 시선은 건설의 성과물을 바라보거나 수행 관료들을 지도하는 모습이 아닌 모호한 시선으로 앞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다. 웅대한 건설 성과물을 지도하고 만들어 낸 통치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견학 나온 외부인처럼 다소 이질적인 존재로 보인다. 반면 왼쪽에 위치한 장성택은 그런 김정은을 다소 권위적인 시선으로 무표정하게 응시하고 있어 다른 수행자들의 웃음 띤 얼굴과도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사진 구도 상으로도 장성택이 전체 현지지도

상황을 관장하는 감독자처럼 맨 왼쪽에서 참석자 모두를 바라보고 있으며 김정은보다 더 풍채가 크게 표현되고 있다.

사진 III-6 김정은의 창전거리 현지도 사진



자료: 2012년 5월 25일 김정은의 창전거리 현지도 (『노동신문』, 2012.05.25.)

아래 <사진 III-7> 역시 김정은의 지도자로서의 불안함과 어색함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새로 신축된 경상유치원을 현지도하는 장면인데, 김정은은 여기에서도 웃고 있지만 표정이 매우 어색하고 여유로워 보이지 않는다. 유치원 관계자들이 반갑게 맞이하지만 김정은은 그들의 얼굴에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부끄럽게 시선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인다. 장성택은 여기에서도 역시 사진 왼쪽에서 여유롭게 웃으며 땅을 내려다보며 걷고 있다. 장성택은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김정은을 의식해 행동을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사진 배경도 역시 양쪽으로 건물이 폐쇄적으로 인물들을 차단하고 있다. 카메라의 앵글도 수평 솟으로 김정

은을 정면 응시하고 있다. 사진 구도 자체가 김정은을 의미 있게 상징화 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 III-7 김정은의 경상유치원 현지도 사진



자료: 2012년 5월 31일 새로 건설된 경상유치원 현지도 (『노동신문』, 2012.05.31.)

반면 2014년 건설 현장 현지도 사진은 이전과 달리 크게 변화된 구도를 보여준다. 아래 <사진 III-8>은 2014년 10월 김정은의 김책공대 아파트 건설 현장 현지도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이 사진에서 김정은은 낮은 데서 위로 찍는 앵글(low angle)로 사진 정 가운데 우뚝 선 모습으로 잡혀 2012년과는 확연하게 다른 구도를 보여준다. 이런 구도는 보통 인물을 보다 크고 중심적으로 만들면서 압도적인 인물로 묘사할 때 쓰인다. 그의 표정은 2012년과 달리 보다 여유 있어 보일뿐만 아니라 조명을 받아 다른 인물들에 비해 확연하게 도드라진다. 사진 구도 역시 곧게 일

직선으로 솟은 건물과 같은 방향으로 김정은이 서 있어 건물의 웅장함과 인물이 매치되는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양쪽에 있는 주변 수행 인물들 역시 김정은을 중심으로 모여 그를 응시하고 있으며 지도를 받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사진은 세로로 긴 구도로 게재돼 중심인물의 힘과 권위가 수직적으로 표현되는 양식을 보여준다.

사진 III-8 김정은의 김책공업종합대학교 현지지도 사진



자료: 2014년 10월 김책공업종합대학교 아파트 건설현장 현지지도 (『노동신문』, 2014.10.17.)

2017년 김정은의 건설 현장 현지지도 사진들은 과거에 비해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다. 아래 <사진 III-9>는 김정은 위원장이 여명거리 건설장

을 현지지도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김정은의 표정은 여유로운 그 자체이다. 한 손에 담배를 들고 만면에 흡족한 웃음을 크게 짓고 있고 주변의 수행자들은 걷고 있으면서도 모두 양 손에 필기도구를 들고 김정은을 따라 조심스러운 웃음을 짓고 있다. 사진 구도 역시 김정은을 미디어엄쉴(상반신)으로 사진 정중앙에 위치시켜 압도적으로 그가 중심인물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양쪽에 소실점을 따라 줄 서 있는 웅장한 건물들은 압도적인 스카이라인을 보여준다. 전체 사진 구도는 양쪽 건물들의 소실점 정중앙에 김정은을 위치시켜 그가 이 거리와 건물들의 주인공임을 도드라지게 보여준다.

사진 III-9 김정은의 여명거리 건설장 현지지도 사진(1)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여명거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이시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여명  
거리건설장을 현지지도  
하시고 해당물질으로  
여명거리건설을 거머지  
맡고서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목적을 남김  
없이 시위환기를 건설에  
동원될 전체 인민들과  
건설사수에게 당령치  
호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회 부위원장 조수용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영환동지, 국무  
위원회 경제국장 이원춘  
동지가 동행하시였다.

경 애 하 는  
최 고 령 도 자 동 지 출  
현지께서 해당 단위의  
일꾼들이 맞이하시였다.  
여명거리를 세계적인



으로 특색있는 편의용  
사시상들을 꾸리고있는  
것이 마음에 든다고 말씀  
하시였다.

공동상점방, 무모방, 무  
우방, 서세, 무역 등으로  
이루어진 상업점이 중앙  
올래가 있다고 하시면서  
어종형제는 더운 풍기가,  
겨울형제는 찬 풍기가 많  
안으로 옮겨오지 못하게  
배려하라는 지시사항을  
말해주고 말씀하시는 경향  
들을 하시하였는데 잘하  
셨다고 하시였다.

입찰상용해택의 개  
교사들과 계속되는 좋은  
상업발전구축에 달려서  
는 확약소, 휴식처, 세탁  
소, 휴식소 등 공공건물  
들과 편의용사시상공사  
도 이강단에서 전격하  
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 애 하 는  
최 고 령 도 자 동 지께서  
여명거리를 만민이 사랑

자료: 『노동신문』, 2017.01.26.

아래 <사진 III-10>은 여명거리 완공 한 달여를 앞두고 다시 이루어진 여명거리 건설장 현지지도 모습이다. 위의 사진과 동일하게 상반신만 나오는 미디어엄쉴에 소실점 구도를 취하고 있다. 김정은의 표정과 모습은

한층 여유롭고 위엄을 갖춘 지도자의 풍모를 연출하고 있다. 김정은의 얼굴에만 조명이 들어가 있어 황병서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은 상대적으로 배경 아래 묻히는 구도이다. 건물 조명(불장식)이 켜진 상태에서 건물들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지면서 김정은이 이 모든 성과의 주인공임을 표현하려 애쓴 흔적이 그대로 보인다.

사진 Ⅲ-10 김정은의 여명거리 건설장 현지지도 사진(2)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여명거리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  
주의인민군 최고  
군사령관이신 우리  
당의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안타깝게도 내일  
비오는 날씨에 건설  
장터의 일손 투입에  
위하여 세인들  
눈을 뜨고 계시는  
현이여 창조되고  
있는 여명거리  
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었다.  
황병서동지, 김정은  
동지, 마원준동지가  
동행하시었다.  
장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 11월 25일  
여명거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태양절까지  
여명거리건설을  
추진할 결심에  
대한



맞게 배치함으로써  
주인공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었다.  
유색건축물이  
도입된 여명거리가  
불수용성이라고  
하시면서  
환경보존에도  
중요시점으로  
키움할 수 있도록  
40층이하의  
건물독상층에  
저층목조건축을  
도입하길  
바라주시었다.  
여명거리의  
모든  
건축물들의  
외벽  
색깔을  
유색과  
흰색으로  
통일시켰는데  
거리  
거리  
거리

자료: 『노동신문』, 2017.03.17.

집권 이후부터 현재까지 김정은의 건설장 현지지도 사진에서 나타난 구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김정은은 건설을 통해 도시의 질서를 창조하는 지도자의 이미지로 변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초기의 폐쇄적이고 다소 초라해 보이는 인물과 배경 구도에서 점차 웅장하고 개방된 건물들의 스카이라인과 동일시되는 중심인물이자 통치자로 묘사되고 있다. 김정은은 도시를 자신의 통치자로서의 위상과 권위를 보여주는 시각적 스펙터클로 최대한 잘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세계적 추세와 전시적인 도시 경관화

김정은 집권 이후 사회주의문명화와 더불어 ‘세계적 추세’에 대한 강조가 잇따랐다. 특히 ‘세계적 추세’는 현대화된 도시 경관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타의 세계적인 도시들이 보여주는 세련됨과 현대화된 양식을 모방하고 따라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도시적 세련됨과 현대화는 김정은의 서구(스위스) 유학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김정은은 시각적 경관과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외부 세계에 경관의 형태로 노출되는 북한사회의 모습,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시각적 이미지에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파트 건설이나 거리 조성은 세계적 추세에 맞게 도시를 시각화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첫째, 2013년 5월 4일 김정은은 국가과학원 잔디연구소를 방문, 맨땅은 보기 좋지 않고 먼지가 생기니 농지를 제외한 모든 땅에 잔디와 클로버를 심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일종의 서구식 잔디 문화를 그대로 북한에 적용하려고 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잔디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의 직접적 관련성보다는 주로 외부로 보여지는 시각적 전시성과 관련이 있다. 최근 들어 소위 ‘녹색형’ 도시나 주택을 강조하고 있는 맥락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 현지 실정이나 기층단위의 실정을 모른 채 유럽식 문화적 경관을 요구하는 지시를 내린 점으로 볼 때, 김정은은 서구식 문화에 대한 동경심이나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북한 현실과 비교하며 그 차이를 좁혀 세계적 추세 속에 북한이 들어가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것이 북한 실정에서 얼마나 가능하고 타당한가에 대한 현실적 타산 능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sup>83)</sup>

<sup>83)</sup> 이런 지시는 북한 현실과 세계적 추세 사이의 간격을 고려하지 않은 지시라고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이런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각 시군은 잔디연구소에서 씨앗과 재배척자를 받아 공장, 인민반, 학교별

둘째, 이런 김정은의 시각적 전시에 대한 관심은 방송의 현대화 추진에서도 나타난다. 북한 주민들은 DVD, 비디오 등 매체를 통해 한국 또는 중국의 영화와 연속극을 접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산 TV를 통해 한국 TV 방송을 직접 시청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사조 유입 차단을 위해 광케이블 회선을 이용, 유선 TV망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방송 시험운영 등 방송 현대화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84)</sup> 당 선전선동부 주도 하 중앙방송위원회와 체신성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들어 만수대TV 등에서 오래된 구 동구권 영화 등의 방영을 늘리고 있다.

셋째, 김정은이 집권 초기부터 관심을 보였던 스포츠에 대한 각별한 관심 표현 역시 시각적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은 스포츠를 통해 대내외에 북한 및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신설을 계기로 국가체육을 한 단계 도약시켜 ‘통제와 폐쇄’라는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체육을 통해 국가 위상을 대외에 홍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미국 농구선수 로드먼 초청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체육행사를 직접 관람하고 선수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주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보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스포츠를 통한 이미지 조작은 외부문화를 적극 수용하고 있는 북한의 개방성과 역

---

담당구역을 설정, 잔디 모판을 만들었다. 그러나 어느 공장에서는 노동자를 동원하여 모판을 만든 다음 관리원을 지정하고 있으나 모판의 도난 사고가 자주 일어나 노동자들이 야간에 모판 경비를 서도록 했다. 이런 지시는 주민들에게 고통으로 전가되는 측면이 있다. 가령 이 지시로 인해 여맹, 인민반은 주민들에게 모판 조성을 위해 부식토(50kg)와 모래, 진흙(각 500kg) 할당량을 주고 이행하지 못하면 현금(15,000원)으로 대납을 강요한 부분이다. 학생들에게도 잔디 모판의 온도·습도 조절에 필요한 비닐 구입비용 납부를 강요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 주민들은 추운지역에서 사계절 푸른 잔디가 자라지 않는데 백성을 괴롭히기까지 애비를 닮았다고 김정은을 비난하고 있다고 한다.

<sup>84)</sup> “북한, 곧 HD방송 시작할 듯... 수신 주파수대역 변경,” 『연합뉴스』, 2015.01.12.

동성을 선전하는 데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사회주의문명화에서 관광은 건축 및 체육과 함께 강조되는 하나의 축이다. 북한은 관광을 외화벌이 수단은 물론 대내외적으로 개방적인 리더십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외화벌이를 위해 다양해지고 유연해진 관광사업이 일정 부분 사회적 개방효과를 가져오는 부분도 있다. 북한은 중국 동북 3성을 겨냥한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에 주력, 북·중 접경 도시에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2015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기 이전에 골프관광, 마라톤관광, 등산관광, 비행기관광, 자전거관광, 체육관광, 노동생활 체험관광, 생태관광, 캠핑관광 등 다양한 상품들이 등장한 바 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통제도 유연해져 북한 내부의 모습을 전하는 관광객의 수도 증가했다. 이런 관광 역시 사회주의문명화 담론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관광 자체가 ‘시각적 경험’에 기초하는 ‘상품’이란 차원에서 김정은의 시각 중심적 접근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섯째, 이런 연속선상에서 2015년 7월 2일 완공한 평양국제비행장(순안국제공항) 항공역사 건설 역시 대외적으로 국가를 전시하는 차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완공한 평양국제비행장은 해외에서 북한으로 출입하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경유하는 북한에서 가장 국제적인 장소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은 대외적으로 북한의 위신과 체면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공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다. 평양국제비행장은 2015년 12월 21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선정한 평양 시내 5대 신축물 중 하나로 꼽혔다. 당시 이 신문은 “2015년, 조국에서는 건설의 최전성기가 펼쳐졌다”며 5대 신축물로 미래과학자거리,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만수대분수화초공원, 대동강 유람선 무지개호, 그리고 평양국제비행장을 소개한 바 있다.<sup>85)</sup>

사진 III-11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 완공 모습



자료: 2015년 7월 2일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 준공식 (『노동신문』, 2015.07.02.)

여섯째, 한편 김정은은 오락시설에 관심이 많아 4D 영화관(입체울동 영화관)을 전국적으로 약 12개 이상 건설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2013년 평양 능라도 유원지의 입체울동영화관 방문 후 전국에 걸쳐 12개 입체울동영화관을 건설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김정은 집권 이후 이루어지기 시작한 각 도시의 물놀이장, 스케이트공원, 영화관 등 문화오락 시설 건설이 집권 기간 내내 지속되었다. 김정은은 입체울동영화관을 직접 찾아 3D 안경을 쓰고 영화를 관람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 능라유원지에 영화관이 만들어진 이후 2년 동안 40만 명이 방문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85) “북 선전매체 ‘평양에 천지개벽’... 5대 신축건물 소개,” 『연합뉴스』, 2015.12.21.



자료: 『노동신문』, 2013.09.15.

일곱째, 김정은은 평양시를 시각적으로 경관화하여 국제적 추세에 어울리는 세련된 도시 이미지 강조를 위해 평양 시민들의 소비생활과 관련한 특권을 주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도시의 시각적 경관화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체제 수호계층과 평양 시민에 대한 특권을 강화 시켜주고 이들의 외부문화 유입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가령 평양 중심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 평양시민에 대한 상품 공급 우선 실시 등이 대표적인 증거들이다. 이런 평양 중심의 기득권 세력에 대한 특권과 물질적 지원을 집중하려는 태도는 평양을 그나마 국제적인 외부 시각에서 보았을 때 부끄럽지 않은 무대로 연출하고 싶은 김정은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혁명수도이자 자신이 늘 가까이 지켜볼 수 있는 도시를 서구의 도시처럼 활기 있는 도시, 세련된 주민들의 도시로 보이도록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김정은의 도시의 시각적 경관화에 대한 관심은 평양시에 저층

아파트 신축을 금지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평양시민들은 단전·단수가 잦아 10층 이하의 저층아파트를 선호하고 아파트 시세도 1~5층이 가장 비싸며, 최근 평양에 10층 미만 아파트 신축이 크게 증가(전기, 수도 공급이 원활한 평양시 중심부만 층간 가격 편차)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은은 평양시내에 신축된 저층아파트를 보고 “도시 미관 해친다”고 질책하자 중앙당에서 평양시 인민위원회를 통해 ‘신축’ 또는 재건축시 15층, 방 3칸, 30평 이하는 엄격 통제 방침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지막으로 북중 접경도시에 대한 전면 재개발 지시 역시 중국과 비교될 수 있는 국경 도시들을 화려하게 시각적으로 꾸며 자긍심을 갖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다. 김정은은 2015년 전용기 편으로 양강도를 현지지도하고 평양으로 복귀하던 중 북중 도시 간 수준차를 직접 목격하게 된다. 함께 했던 수행원들에게 “혜산, 신의주 등 국경도시를 중국보다 더 화려하게 건설하라”는 방침을 즉흥적으로 하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양강도 혜산시는 도시개발 계획안을 중앙당에 제출하였고,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2016년 5월 7차 당대회 결정으로 중앙위 비서국에서 정무국으로 개칭)은 2016년 5월 ‘혜산시 건설총계획’을 제하로 이 계획안을 승인한다. 혜산시 재개발 인력동원 계획에 따라 양강도 혜산시 군부대 및 각종 돌격대 20만 명이 동원되어 2017년 공사에 착수한다. 평양 ‘여명거리’ 건설 공사에 투입된 인력을 이 공사가 종료되는 대로 혜산시 재개발에 우선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 (4) ‘불장식(야경)’ 강조와 서구적 도시 스택터클 창출

김정은 정권이 도시를 시각적으로 대상화하고 전시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도시에 대한 ‘불장식(조명효과)’과 ‘축포(불꽃놀이)’이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핵·미사일 고도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고 만성적인 전기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이 화려한 야경으로 연출하고 있다는 것은 다소 모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위 도시 조명

효과를 통해 야경을 과시하는 이유는 자신이 건설한 도시 건축물과 거리가 국내외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전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2017년 3월 16일 김정은 위원장의 여명거리 건설현장 현지지도 내용을 보도하면서 야경 사진들을 게재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야경을 이룬 거리의 모습을 환한 미소 속에 바라보았다”고 보도했다.

사진 Ⅲ-13 여명거리 건설현장 야경



자료: 『노동신문』, 2017.03.16.

김정은은 여명거리의 야경을 보며 “불장식(야경)까지 하면 아름답고 황홀함을 말이나 글로써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연이어 다음날에도 김정은이 “여명거리 완공에서 불장식 공정에 커다란 중요성과 의의를 부여하며 불장식을 잘 할 것에 대한 강령적 과업을 주었다”고 보도했다.<sup>86)</sup>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불장식 정치’ 방식을 그대로 이어 받아 평양의 밤거리를 환하게 밝히는 것을 선호한다. 김정일은 2001년

<sup>86)</sup> 『노동신문』, 2017.03.16.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고난의 행군을 종료하면서 평양시 밤거리를 불장식으로 밝힐 것을 지시했다. 소위 ‘불장식 정치’를 시작한 것이다. 평양의 밤거리를 밝히면서 주민들에게 ‘사회주의 승리에 대한 신심’을 심어주고 세계에 ‘조선식 사회주의의 승리’를 보여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이를 위해 평양시 인민위원회 직관선전국 산하에 ‘불장식 연구센터’를 설립해 밤에도 김일성광장·주체사상탑·옥류교 등 평양의 대표적 건축물을 통째로 드러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평양시는 당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불장식에 많은 돈을 들일 수밖에 없었다. 평양시 인민위원회 소속 외화별이 회사의 주요 임무로 평양의 불장식에 필요한 자금을 구입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불장식 설비 구입을 위해 중국에 외화별이 회사 직원들을 보냈다고 한다. 평양시 거리뿐 아니라 당창건기념탑, 천리마동상 등의 건물을 불장식하여 조명에서 ‘수령영생을 위협을 달성하라’는 김정일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였다.

사진 Ⅲ-14 평양의 야경



자료: 『노동신문』, 2017.01.01.

김정은은 아버지 보다 한 걸음 더 나갔다. 내각 산하에 ‘직관불장식 지도국’을 신설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직관불장식 지도국’ 산하에 ‘선경 불장식 연구소’를 만들고 여명거리 건설에서 불장식의 효과를 최대로 높이도록 지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인사는 “김정은이 연구소의 이름에 ‘선경’을 넣도록 지시했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 김정일의 생각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김정일은 2001년 황해북도 서흥군 범안리를 현지도하면서 “여기가 바로 사회주의 선경”이라고 감탄했다. 북한은 그 이후 경치가 신비로운 풍경을 묘사할 때 ‘선경’을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김정은은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주최로 해마다 평양에서 열리는 중앙과학기술축전에 ‘불장식 및 조명기구’ 분과를 신설해 불장식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세계가 깜짝 놀랄 ‘조선식 불장식’을 하자며 평양 야경을 위해 조명기술자들을 외국에 연수 보내고 있다. 지금도 명절이나 외국인들을 초청하는 북한의 행사 기간에는 평양시 만수대 일대의 아파트 외벽을 도시가 살아 움직이는 느낌을 주는 LED조명 불장식으로 꾸민다.<sup>87)</sup>

### (5) 도시 스카이라인을 통한 권력의 도시적 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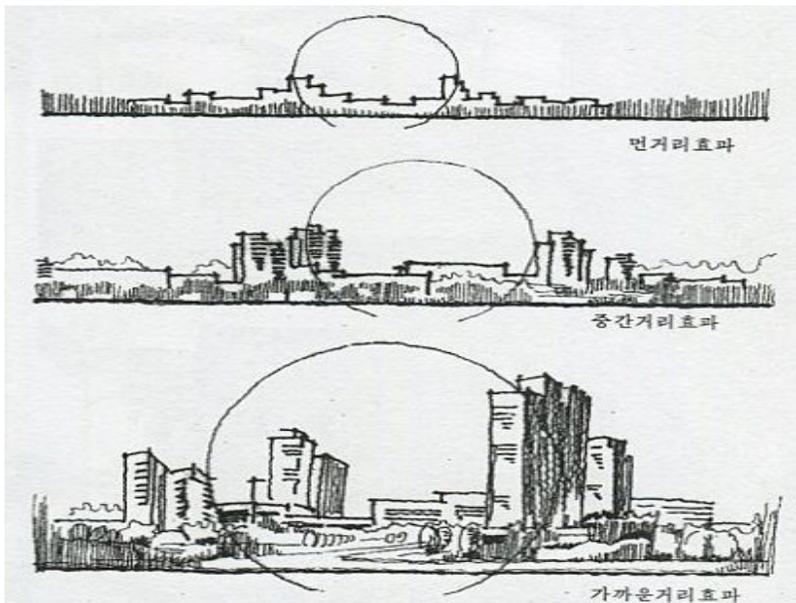
통치자들의 이미지는 보통 승리주의적(triumphalist)인 양식을 보인다. 전통적으로 의식이나 조각, 건축물 등에 표현되어 온 ‘승리’ 또는 ‘지배’의 도상학적 상징물에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같은 기념물들을 비롯해 월계관이나 트로피, 포로들, 행진처럼 승자를 장식해 주는 이런저런 세부적인 것들, 그리고 승리와 명예가 의인화된 인물 등이 있다. 지도자를 상징화하는 데 있어 기마와 권력의 은유는 전통적인 소재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접적인 승리주의 양식으로서 기념물이나 상징물

<sup>87)</sup> “김정은의 각별한 ‘야경 사랑,’” 『중앙일보』, 2017.03.27.

등 소위 사물화된 기호가 아닌 도시 전체를 권력의 기호로 전환한다면 그것만큼 지속적이고 역사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도시 전체를 기호화하는 방법은 발전과 성과로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대대적으로 변화시켜 도시 경관 자체를 바꾸고 이것을 시각화하여 자신의 통치 시대를 도시에 각인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스카이라인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해 왔다.

그림 Ⅲ-2 도시입구공간의 건축 형성과 시점의 특징: 스카이라인 형성



자료: 리광·리성철, “도시입구공간의 건축 형성과 시점의 특징,” 『조선건축』, 2006년 제3호, p. 40.

리광·리성철의 『조선건축』 내용은 북한이 도시 스카이라인을 강조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북한은 도시 입구로부터 형성되는 도시의 시각적 이미지에 큰 관심을 가졌다. 북한은 “도시 입구는 해당 도시의 관문으로서 도시 중심부와 주변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해당

도시의 첫인상점으로서 도시의 위치와 규모, 도시의 성격과 발전 면모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도시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하는 데서 도시 입구를 잘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sup>88)</sup>

도시 스카이라인과 고층 빌딩은 기능적으로는 도시 전체의 경관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도심과 부도심, 도시와 외곽지역(시골)을 구분하는 경계선 역할을 한다. 중요한 것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일종의 기호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기호는 개념을 대신하거나 혹은 표상하고, 다른 기호와의 관계를 통해 의미를 발생시키거나 전달하는 표식과 잡음으로 이해될 수 있다.<sup>89)</sup> 기호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협상 가능한 것이므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따라서 의미는 정치의 산물이며 권력의 작용이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다른 의미가 되었을 기호의 의미를 권력이 규제하여 고정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데올로기적 투쟁’은 기호의 의미를 놓고 벌어지는 경쟁으로 이해될 수 있다.

---

<sup>88)</sup> 리광·리성철, “도시입구공간의 건축 형성과 시점의 특징,” 『조선건축』, 2006년 제3호 (2006), p. 40.

<sup>89)</sup> 크리스 바커·다리우스 갈라신스키 지음, 백선기 옮김, 『문화연구와 담론분석: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담화』, p. 45.

사진 Ⅲ-15 통일거리 스카이라인



자료: 국가지식포럼 북한지역정보넷 인문지리정보관 교통편, <<http://www.cybernk.net/infoText/Info/>> (검색일: 2017.10.15.).

사진 Ⅲ-16 광복거리 스카이라인



자료: 국가지식포럼 북한지역정보넷 인문지리정보관 교통편, <<http://www.cybernk.net/infoText/Info/>> (검색일: 2017.10.15.).

사진 Ⅲ-17 창전거리 스카이라인



자료: 『통일뉴스』, 2015.06.01, <<http://www.to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198>> (검색일: 2017.10.15.); 원자료는 북한 웹사이트 『조선의 오늘』, 2015.06.01.

사진 Ⅲ-18 은하과학자거리 스카이라인



자료: 『노동신문』, 2013.09.11.



자료: 『조선중앙통신』, 2015.11.04.

위의 사진들을 보면 과거 김정일 시기에 건설된 광복거리와 통일거리의 스카이라인과 김정은 집권 시기에 건설된 거리의 스카이라인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과거 스카이라인이 살림집 모양에서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양식을 보여준다면, 최근 건설된 거리들은 높낮이나 건물의 모양이 매우 다채로우며 멀리서 본 스카이라인이 균형감을 갖도록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스카이라인 형성을 치밀하게 미학적으로 고민하여 건설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조성된 대규모 거리와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내고 있다. 이것은 스카이라인을 통해 도시 전체를 영구적인 통치의 기호로 삼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 3. 건설의 스토리텔링과 통치 테크놀로지

#### 가. 건설 스토리 창출을 통한 주민 결속의 테크놀로지

김정은 정권은 대규모 거리 및 주택 건설을 극적인 건설 드라마로 대내외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건설의 일화들과 극적인 건설 과정의 전달은 통치 테크놀로지 차원에

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거리 조성 사업은 주로 10월 당 창건일이나 당대회와 같은 주요 정치행사 일정에 맞춰져 건설 일정이 진행되었다. 여명거리는 원래 10월 10일 완공 목표였으나 북부지역 수해로 인해 피해복구에 우선 나섬에 따라 그 다음 해인 2017년 4월 김일성 생일 이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어 4월 13일 준공식을 가졌다. 당창건일이나 김일성 탄생일에 완공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극적인 요소를 갖게 된다. 촉박한 공기에다 불구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 일정에 맞춰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면 이 기념일의 의미와 상징성을 배가시키고 고조시키기 때문이다.

이들 프로젝트의 특징은 건설 과정을 거의 매일 단위로 실시간 보도하며 착공 2개월 만에 15층 골조 결합, 3개월 만에 30층 골조 결합, 하루 1개 층씩 18시간 만에 한 층씩 건설 등 불가능해 보이는 완공 기일에 맞춰 전개되는 공사 과정을 극적으로 전달하면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하루 3만여 명의 군인·돌격대원·학생들이 동원돼 휴일 없이 24시간 2교대로 일을 하는 등 전 국가적, 전 사회적 관심 이슈로 마치 한편의 건설 드라마를 극적으로 써 가듯이 연일 북한 모든 매체들이 건설 현장 소식과 미담을 전하는 데 몰두했다. 건설 중간에 김정일이 수시로 방문을 한 사진들이 대거 공개되면서 극적인 효과를 고조시키기까지 했다. 이런 현상은 북한 지도부가 대규모 거리 조성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려명거리건설소식 살림집총공사량의 98%계선 돌파

뜻깊은 태양일까지 거머쥘 만공의 표정을 품어 건설의 각오인고 살아갈이 멀어지선 우리의 이터운 렬명거리건설자들이 승비에서 더 큰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최후돌격전에서 변함 새로운기력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사건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부문에서는 렬명거리건설을 최상급 수준에서 완공하고 단련발전소건설과 김중권원기기관차원형기업소련대항공사, 원산지구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 역량을 집중중대 교목문화시설과 살림집들을 더 많이 훌륭히 끝내 세워야 합니다.》

충만한 자로에 의하면 6일현재 렬명거리건설장적으로 새로 일떠서는 살림집공사와 하루씩 살림공사가 98%계선을 돌파하였다.

이와 함께 분사건물공사의 건설공정률공사와 총공사량의 88.6%, 72.1%계선을 넘어 매일 빠른 속도로 전격되고있다.

려명거리건설에 에너르기열악기술, 특색건축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 원일축화사업이

계속 힘있게 추진되며 성과가 확대되고있으며 불장직공사와 동시에 일떠져 61%계선을 돌파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사건정지 1월 25일 렬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렬명거리건설지휘부에서는 전반적인 대상공사들이 마감단계에 이른데 맞게 준공건설을 위한 예비경사에 모를 박고 이 사업을 계기로 모든 시공단위에서 속도와 함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무단히 높이였다.

려명거리건설에 참가한 인민부직성애해 각급 부대 장병들이 70층살림집 의벽타일붙이기경연에서 대투신형강군의 기상을 높이 떨치고있다.

높이가 2대수심만큼 레이라는 초고층살림집의 의벽에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로야들을 붙인 수많은 발판들을 제단적으로 배치하여놓고 붙이 달린 화약파도 같은 기세로, 특색에도 갖춘 공적성적으로 실장을 붙여주며 내달리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의 열혈투쟁으로 하여 타일붙이기실적은 시간마다, 날마다 오르고있다.

조선인민군 건설특속부대

장병들이 9개 대상의 방대한 공사과제를 하루빨리 끝내달 의지를 안고 일제전의 거세한 불길로 지펴올리고있다.

부대에서는 모든 권인들이 건설물의 질을 인민이 평가한다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자기 부모형제들이 생활할 모퉁이로 꾸리는 실정으로 일보장에서 스스로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도록 정치사업을 펴고있고있다. 부대 군인건설자들은 자기가 맡은 구간을 사회주의수조전의 전초포대가 되게 하고 그 구간의 건설물의 질은 조국과 인민을 자기가 진정으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사소한 무속없이도 나타내며 정성을 기울이고있다.

이리 살림집의벽타일붙이기를 완료한 모란55-1-가, 나로동건설을 맡은 조선인민군 군인건설자들의 위훈 따라 조선인민군 박정특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5일현재 맡은 살림집의 의벽타일붙이기량 98%계선에서 다그치고있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건설전제공정성과 대외건설지도국의 권유원들이 각각 97%, 90%, 조선인민군

김광일특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91%계선을 돌파한 거제도 살림집의벽타일붙이기역 대속박차를 가하고있다.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와 황해북도, 강원도, 평선시려단의 출격대원들도 함리적인 작업방향을 의주 받아들이어 김일성종합대학 15.0기속사, 나동과 16.0기속사의 내부공사, 6.0식당과 15.0, 16.0기속사의 지열냉공방 및 변전실내부공사에서 매일 높이 세운 공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투학생속소 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과 황해남도려단을 비롯하여 여러 단위의 전투원들도 내벽이장, 장식미장 등 일일민주목표본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전당적, 전국적, 전사회적으로 렬명거리건설을 적극 지원한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성, 중앙기관들과 평양시당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 김일성종합대학 15.0, 16.0기속사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다그쳐 끝내기 위한 건설자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진해주고있다.

현지도도반

자료: 『노동신문』, 2017.03.07.



자료: 『노동신문』, 2016.06.21.

생각하는 필요성은 물론이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문화는 정말 아름답다. 세계 다른 문화와 비교하면, 우리가 필요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문화는 정말 아름답다. 세계 다른 문화와 비교하면, 우리가 필요하는 것은 아니다.

심화

생각하는 필요성은 물론이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문화는 정말 아름답다. 세계 다른 문화와 비교하면, 우리가 필요하는 것은 아니다.

려명거리 건설장의 야전리발사

여명거리 건설장이 야전리 발사를 시작했다. 야전리 발사는, 누구나 하기 힘든 일을 할 것이다. 하지만 야전리 발사는, 누구나 하기 힘든 일을 할 것이다. 야전리 발사는, 누구나 하기 힘든 일을 할 것이다.

요즘 워낙 어려운 형편이지만, 야전리 발사는, 누구나 하기 힘든 일을 할 것이다. 야전리 발사는, 누구나 하기 힘든 일을 할 것이다. 야전리 발사는, 누구나 하기 힘든 일을 할 것이다.

자료: 『노동신문』, 2017.03.19.

그 어떤 힘으로도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적 전진을 절대로 가로막지 못합니다. 김정은

태양조선의 강대성을 알려면 우리의 려명거리를 보라!

태양조선의 강대성을 알려면 우리의 려명거리를 보라! 태양조선의 강대성을 알려면 우리의 려명거리를 보라! 태양조선의 강대성을 알려면 우리의 려명거리를 보라!

자료: 『노동신문』, 2017.03.19.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배려해주신 러명거리 살림집리 이용허가증을 수여하는 모임 진행

인민들의 정서상태를 명백히 반영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적 인본주의적 원칙과 원칙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문화유산의 선진화과정도 그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적 전통을 고수하여 공물을 창출하는데 나서는 공화민정당의 높은 책임감과 책임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인민들의 정서상태를 명백히 반영하고 있다. 인민들의 정서상태를 명백히 반영하고 있다. 인민들의 정서상태를 명백히 반영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정지라는 제2호의 정서상태를 높이기 위해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적 전통을 고수하여 공물을 창출하는데 나서는 공화민정당의 높은 책임감과 책임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같은 시기에 정지라는 제2호의 정서상태를 높이기 위해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적 전통을 고수하여 공물을 창출하는데 나서는 공화민정당의 높은 책임감과 책임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료: 『노동신문』, 2017.04.15.

### 사진 Ⅲ-25 여명거리를 통해 국력과 핵강국의 지위를 과시하는 선전적 이미지

### 러명거리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여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국력을 남김없이 시위하자

인민들의 정서상태를 명백히 반영하고 있다. 인민들의 정서상태를 명백히 반영하고 있다. 인민들의 정서상태를 명백히 반영하고 있다.

인민들의 정서상태를 명백히 반영하고 있다. 인민들의 정서상태를 명백히 반영하고 있다. 인민들의 정서상태를 명백히 반영하고 있다.

인민들의 정서상태를 명백히 반영하고 있다. 인민들의 정서상태를 명백히 반영하고 있다. 인민들의 정서상태를 명백히 반영하고 있다.

인민들의 정서상태를 명백히 반영하고 있다. 인민들의 정서상태를 명백히 반영하고 있다. 인민들의 정서상태를 명백히 반영하고 있다.



자료: 『노동신문』, 2017.01.28.

### 나. 애민정치 소비욕망

2000년대 이후 북한에서 아파트는 시장을 통해 새로운 신화와 욕망을 만들어 내고 있다. 북한의 시장화 과정은 주택 또는 아파트의 상품화 과

정이기도 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굶주린 사람들이 국가에서 배정받았던 아파트를 달러와 바꾸기 시작했다. 2000년대부터 대부분의 아파트는 시장을 통해 형성된 민간 자본을 통해 건설되고 거래되는 상품이 되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파트는 부의 창출과 재생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아파트를 둘러싼 이해관계도 다양해졌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통한 부의 창출 과정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 기관 또는 권력은 아파트 건설 및 거래 시장의 확장을 부추긴 주역이었다. 국가는 민간 자본과 결탁하여 아파트 건설을 통해 계획수행 실적과 기관 이익을 챙겨 왔다. 북한 물가의 등락에서 아파트 건설 및 거래 시장이 갖는 영향력은 계속 커져 왔다. 아파트 거래가격의 변화는 곡물값이나 환율 등과 민감하게 연동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 아파트 건설과정에 소요되는 강재, 시멘트, 인력 등의 많은 부분이 시장에 의존해 왔으며, 건설 수요가 많을수록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전반적인 물가에도 영향을 미쳐 왔다.

한편 김정은은 각 도소재지급 도시에 복지시설을 건립하도록 지시를 했다. 2015년 12월 김정은은 양강도당에 700여 명의 고아들을 수용, 교육할 수 있는 대규모 중등학교 신축을 지시한 바 있다. 숙소(7층), 교사(4층), 실내체육관(2층), 의료시설 등으로 구성되었고, 김일성 생일인 2017년 4월 15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완성되었다. 이어서 원산, 평성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유사한 형태의 중등학교들이 대규모 단지 형태로 신설되었다.

양강도당의 경우 공기를 맞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중등학교 개보수 돌격대’와 공장, 기업소 근로자 등 매일 1,000여 명의 인력을 동원, 심야작업도 강행하는 한편(차출할 인력이 부족한 공장·기업소에서는 초급당비서와 지배인도 동원) 자재와 노동력이 부족하자 입당, 표창 등을 내걸어 현금 납부를 강요하고 노동단련대에 수용된 인원들까지 동원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 공사를 김정은의 애민 이미지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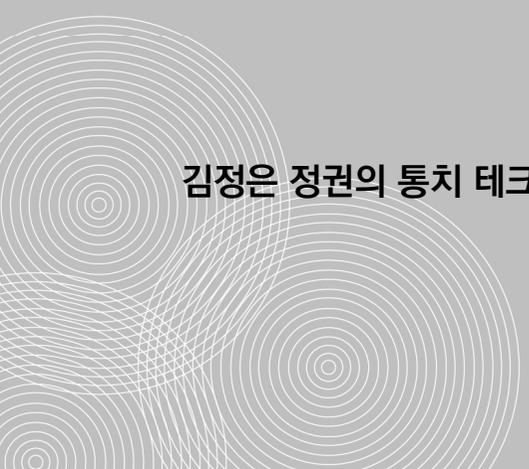
도 병행하였다. 공사장 곳곳에 ‘후대사랑과 미래사랑을 꽃 피우자, 고아들의 보금자리를 잘 만들어 민족간부로 만들자’라는 대형 선전물을 설치하고 작업 현장에서 수시로 ‘김일성의 만경대혁명학원 설립 이념’을 선전하며 김일성의 애민정치를 연상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최근 평양 시내 일부 간부, 부유층 사이에서 아파트 실내장식이 유행하여 각 기관·공장 건축부서는 돈벌이를 위해 실내장식업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인조대리석, 원목마루, 이중창틀, 고급커튼, 맞춤형 가구를 설치하여 내부개조 공사도 하고 있다고 한다. 중앙당 재정경리부 소속 백두산건축연구원은 김부자 전용 특각, 체제선전 건축물, 당 및 산하기관 건물을 설계·건축해 온 북한 최고의 건축설계 및 연구기관으로서 최근 들어 돈벌이를 위해 아파트 실내장식 사업에 뛰어들어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유명 설계 건축가들을 다수 보유하고 고급 실내장식 공사 경험이 많아 계약을 하기 힘들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편 평양 시내 주택 실내장식 공사수요가 급증하자 중국 업체들이 평양 진출을 위해 현장조사와 지사 설립을 추진 중이며, 북한 업체들은 중국 업체가 들어오면 선진기법, 고급 전자재, 자금력으로 자신들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백두산건축연구원을 중심으로 중국 업체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권력을 가진 자와 부유층의 아파트 실내장식은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측면에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주민들의 모방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런 아파트 건설과 실내장식의 붐은 외부의 영화나 드라마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보여지는 집안 인테리어나 주택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물질적 소유나 과시욕구를 상류층에게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문화 유입이 주는 영향이 계급적 위계를 강화하거나 이들의 계층의식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IV. 도시 모빌리티와 통치 테크놀로지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모빌리티(social mobility)는 기존 사회과학 이론이나 설명 방식이 주로 정지 상태, 구조, 사회적 질서에 천착해 왔다고 보고, 실제 사회라는 세계는 움직임, 모빌리티를 통해 더 많은 것이 설명될 수 있다고 보는 패러다임이다. 다시 말해 고정되고 정형화된 개념을 통해 사회를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확정되지 않은 질서 형성에 초점을 둔 사회학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모빌리티는 문화 차원에 적용하면 문화를 보고 접하면서 신체적, 상상적, 가상적 모빌리티의 정도나 범위 등 확장되고 다양한 파급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주목하게 한다.

한편 행위성(agency)은 사물과 사람들의 상호 교차에서 도출되는 방식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행위성이란 행위자 그 자체가 가진 능력이란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위자나 사물들과의 접촉이나 만남을 통해 행위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옷이나 펜, 신발이나 가방, 컴퓨터나 핸드폰이 없이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듯이 사회세계에서 개인의 행위성이란 다양한 사람들과 사물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적 차원에서 본다면 개인들이 갖는 행위성은 타인이나 외부의 문화를 접하고 모방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 갖게 되는 것이다. 외부문화를 접하면서 신체적, 상상적, 일상적 모빌리티 자체가 변화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개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사회적 모빌리티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런 모빌리티가 체제에 반하는 전복적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정치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전반의 행위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당장의 체제 전복을 위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심대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사회적 경계의 내부와 그 경계들 사이를 관통하며 움직이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흐름 각각의 불균등한 도발 범위에 대해, 그리고 이것들이 시간과 공간적으로 어떻게 상호 연결되는지를 조사하는 것도 사회적 모빌리티에 해당한다. 외부문화의 유입은 이와 같이 기존의 관습

화되고 규범화된 사회적·물리적·문화적 경계들을 해체하거나 넘어서면서 새로운 흐름들을 만들어 내기 마련이다. 이런 경계의 재구성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하게끔 한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주 및 이동 양식을 통해 계급, 젠더, 인종, 국가성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거주 감각, 거주 감각을 좌우하는 사람, 선물, 사진, 이미지, 정보, 위험 등의 여러 모빌리티, 사회생활의 미디어화 확대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1. 외부 문화유입과 사회적 모빌리티

최근 2014년 3월 22일 노동신문 보도에서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모기장을 2중, 3중으로 든든하게 쳐야 한다”면서 북한 사회 내 자본주의 문화 유입을 적극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부르주아 사상문화, 제국주의 반동 사상문화의 정체는 인간의 건전한 사상과 의식을 마비시키는 마약이자 독소, 일부 국가들에서 반제국주의 정권들이 무너지고 후 친미 정권들이 세워진 것은 미국이 불어대는 허튼 나발을 곧이 듣고 기만전선에 맞춰 춤을 추면서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제국주의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을 묵과하면 필연적으로 반혁명세력의 대두를 초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끌어들이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정은이 제8차 당사상 일군대회(2.25)에서 ‘자본주의 독소를 막을 모기장을 2중, 3중으로 칠 것’을 강조한 이후 보도매체를 통해 자본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해왔다. 특히 ‘잡사상을 막는 모기장을 치자(2.27)’, ‘온사회를 붉은 사상으로 일색화하자(3.4)’ 등 노동신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에 앞서 보다 구체적인 방식으로 2013년 10월 김정은은 한국영화, 음란물 시청 등 ‘황색바람’ 차단을 위해 관련자 공개 처형 등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강도 혜산의 경우 2013년 11월 한국영화 CD유통 관련자 15명을 적발, 혜산 비행장에서 공개재판 후 주동자 2명

은 기관총으로 총살하고, 나머지 13명은 ‘당의 특별배려’라며 노동단련형을 선고한 바 있다. 지역담당 보위원들은 인민반 회의에서 한국영화, 드라마는 물론 중국 등 외국영화 소지, 시청도 엄벌에 처한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자본주의 문화 유입과 관련한 주민통제는 김정은 등장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돼 왔다. 주민통제를 위한 인민보안단속법의 개정을 통해 단속행위 대폭 확대를 지시한 바 있고, 미신행위를 날조하거나 사실을 날조 및 왜곡하거나 요언을 퍼뜨리는 행위, 장사·물물교환을 목적으로 술을 만들거나 또는 국가가 금지시킨 물건을 팔고 사거나 시장 밖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였다.<sup>90)</sup>

한편 접경지역에서는 ‘폭풍군단’ 검열조를 파견하여 단속에 걸린 주민을 오지로 추방하였는데, 마약 등 밀수, 인신매매, 중국 휴대폰 사용자, 행방불명자 순서로 주민과 해당 가족을 추방하기도 했다.<sup>91)</sup> 검열조 파견과 추방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공포통치’ 분위기가 완화된 부분도 있다. 폭풍군단 검열조는 기존 검열을 담당했던 군인과 기동순찰대 등과 자주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밀수행위들을 눈감아 주면서 뒷돈을 챙긴 간부와 폭풍군단 검열조의 갈등인 것이다.<sup>92)</sup> 또한 주민들의 옷차림 통제, 소위 CD알 전쟁, 영상물을 통한 외부 정보 유입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일상적으로 ‘가택수색’을 전개한 바 있다.<sup>93)</sup> 검열대를 조직하여 방랑자를 단속하는 927상무, 비사회주의 단속 1112상무, 도박 단속 724상무, 비사회주의 현상과 남한 물건이나 문화 들어오는 통로 단속 828상무 등 각종 상무조를 조직하여 단속을 강화한 바

90) 이규창, “인민보안단속법(구 사회안전단속법) 개정과 북한의 주민통제 강화,”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1-31, 2011.11.15), p. 5.

91) “폭풍군단 검열 2주만에 양강도 50세대 추방,” 『데일리NK』, 2011.08.17.

92) “‘불난주민에 백기’, ‘폭풍군단’ 검열 초기 종료,” 『데일리NK』, 2011.08.30.

93) “북 CD알 전쟁, 무작위 가택수색 실시,” 『데일리NK』, 2011.09.30.

있다.<sup>94)</sup>

다음으로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 아프리카, 중동지역에 간호 인력과 식당종업원으로 여성 근로자들을 파견해 왔으나 해외파견 여성 근로자들이 돈벌이를 위해 현지 외국인들에게 공공연히 성매매를 하여 국가 위신을 실추하고 북한으로 귀환할 때 퇴폐풍조를 들여오는 폐단이 발생하자 집단생활로 통제가 가능한 식당종업원을 제외하고 간호 인력을 송환한 후 여성 근로자의 해외파견을 중단하였다고 한다. 이에 중국 당국은 북측에 안마사, 식당종업원 등의 여성인력 파견을 요구하였으나 식당종업원 이외 파견을 불허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한 외부문화의 유입이 많았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 파견을 중단하기까지 했다.

한편 장성택 처형 이후 통제는 보다 강화되었다고 한다. 국경지역에 국가안전보위부 및 인민보안부 소속 간부를 파견하여 주민들에게 교양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민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 군당이나 인민위원회 간부들이 일반 주민으로 위장하여 비밀리에 여론을 수집하고, 장성택과 무관한 불순녹화물 소지, 시청, 남한과 전화연락, 밀수 등 비법 행위 자까지도 적발 시 무조건 강력 처벌한다며 엄포를 놓으며, 내부동요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주민들의 외부문화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내각 산하 인민보안성을 인민보안부로 명칭을 바꾸고 국방위원회 산하에 배치하는 등 조직적 효율화도 추진한 바 있다. 국가안전보위부에 일반범죄 수사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반체제 사범 색출은 물론, 인신매매, 비법월경, 마약 밀매 및 복용, 음란물, 한국영화 시청, 매춘 등 일반범죄도 취급하도록 권한을 주었다. 이들은 당, 보안기관, 검찰소 비리도 검열 및 수사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모하였다. 이런 기관 권한

<sup>94)</sup> “김정은 지시한 날 따서 '828상무' 검열대 조직,” 『데일리NK』, 2011.09.05.

강화는 외부문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태도는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요소를 일정하게 도입하려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자본주의 문화 유입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이중적인 태도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서구에서 유학을 경험한 김정은이 보기에 비사회주의적인 현상은 문명화된 사회주의,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라 자본주의 저발전 국가에서나 나타나는 일탈적 행위로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자본주의적 요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문명화되고 근대화된 서구의 자본주의가 갖는 세련된 요소들만을 좋게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살펴보겠지만, 해외 유학 경험을 가진 개방적인 지도자의 성향과 누구보다 강력하게 주민들을 통제하려는 이중적 성향이 모두 김정은에게서 강하게 발견되고 있는 점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학적 차원에서 그의 성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서구적 근대화를 쫓아 그대로 모방함으로써 정상화된 국가 이미지를 외부에 보이겠다는 욕망이 큰 반면, 그런 외부문화의 모방이 주민들 전체로 외부문화를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로부터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김정은의 외부문화 유입 정책은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일 뿐 대다수 주민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통제 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해 왔다는 특징을 갖는다. 다시 말해 그의 외부문화 유입 정책은 강력한 지배력과 국가 위신 제고 차원에 있다고 하겠다.

김정은 정권 들어 나타난 통치상의 특징 중 또 다른 하나는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탈북 단속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점이다. 현재는 국경 경비대, 인민보안성, 국가보위성(구 국가안전보위부) 등 3중으로 탈북을 통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0년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급격히 줄면서 현재는 절반으로 감소했다.<sup>95)</sup> 이런 탈북자 감소의 배경에는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적 관심사가 되면서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탈

북자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2012년 4월 인민무력부 소속 국경경비총국을 국가안전보위부로 이관시켰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반정부·사상 범죄를 전담하는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이다. 국가안전보위부로 국경 경비 업무를 이관한 것은 ‘탈북’을 그만큼 엄중히 다루고 통제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국가안전보위부 이관 이후 국경통행증 발급을 강화하였고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한 사상교육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탈북자들이 많은 양강도 혜산시나 함경북도 무산군 등에는 두만강변에 못판(밧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나무판에 못을 박아 바닥에 설치), 구덩이 등 장애물을 설치하고 주요 도강지점에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심지어 2015년에는 탈북방지용 족창(사냥뿔)을 제작해 설치하기도 했다고 한다.

## 2. 도시 규율과 사회-기술적 장치

### 가. 주민 소요 진압을 위한 기동타격대 창설 운용

김정은 집권 이후 주민을 상대로 한 물리적 통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기동타격대’의 조직과 운영이다. 인민보안성 내무군 산하 기동타격대(또는 특별기동대)는 김정은이 후계자 시절인 2009년 3월에 조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동타격대는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서 주민들의 소요 및 시위 등 체제 위협요인이 발생할 경우, 군의 개입에 앞서 1차적으로 주민들을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상설적인 무장 전투경찰에 해당한다. 만약의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조기 진압과 강력한 제재를 통해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기동타격대의 기본 목표이다.

<sup>95)</sup> 2009년 2,914명에 육박했던 국내 입국 탈북민 수는 김정은 집권 이후 국경 단속 및 감시가 강화되면서 2011년 2,706명, 2012년 1,502명, 2013년 1,514명, 2015년 1,397명, 2015년 1,276명으로 감소, 2015년 1분기 241명에서 2016년 같은 기간 265명을 기록, 10%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1-3월 입국 탈북민 342명...김정은 정권 들어 첫 증가세,” 『데일리NK』, 2016.04.12.

창설 배경은 2009년 전격적으로 단행된 화폐개혁에 대한 불만 여론이 높아지자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우려해 소요를 진압하기 위한 조직의 필요성 때문이다. 기동타격대는 각 도 인민보안국, 시·군 보안서 산하에 소요를 진압하기 위한 조직으로 창설된 것이다. 특히 소요 위험이 높은 북중 접경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2~3배 많은 규모로 편성되었다. 기동타격대는 기존 지역 인민보안서 '순찰대' 인력을 편성하였으나 주로 35세 이하 젊은 제대군인 출신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폭동이나 소요가 발생하면 주도자를 색출·제거하거나 중심을 와해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2012년 10월부터 기동타격대의 무장 수준을 증강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기동타격대의 화력을 보강하고 장비 현대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기존 자동보총 및 권총 이외에 소형 박격포 등 각종 진압장비를 추가 배치하여 중무장을 하도록 했다. 이 밖에 최루탄, 헬멧, 방패, 방탄 조끼, 방호복, 바리케이트 등 진압용구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 2012년 갑자기 기동타격대의 무장 수준을 높인 것은 2011년 리비아 카다피의 최후가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동타격대의 규모와 위상은 빠르게 커지고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도, 시, 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도소재지급 도시의 경우 약 500~1,200명, 일반 시나 군의 경우 작게는 15~30명 정도로 구성된다. 양강도 혜산시의 경우 기동타격대 대원이 600명 가량 되며, 주로 제대군인들과 인민보안부 정치대학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혜산시의 경우 2015년 초부터 무장 수준을 높여 최근에는 오토바이 10대와 기관총, 박격포 수십문, 장갑차 4대 등이 새로 배치되었다고 한다.

청진시의 경우 2009년 3월 초 기동타격대를 조직할 당시 포항구역 청송동 도보안국 건물에 배치하였으며 인원은 160명으로 시작했다. 2011년에는 600여 명으로 병력을 거의 4배 가량 대폭 늘렸으며, 2014년에는 1,100명으로 다시 2배 가량 확대 증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96)</sup> 건물도 2014년 청진시 수남구역 수남시장 옆에 새롭게 3층으로 건물을 지으면

서 인민보안부 건물로부터 독립했다. 독립 건물을 배정한 것은 기동타격대가 상설적인 조직으로 고유의 역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물에는 야외훈련장, 병기고, 장비창고 등도 딸려 있다. 2015년 병사들에게 얼룩무늬로 된 전투복과 철갑모를 새로 지급하여 인민보안부 일반 보안원과 복장도 차별화하였다. 무장 수준도 초기엔 자동소총과 발사관(무반동포) 같은 기초 무기로 무장했지만, 2010년 4월부터 중국산 무선전화기와 곤봉, 전기충격기 같은 시위진압장비들을 갖추고 야간경비 임무에 투입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기동타격대는 순찰과, 경비과, 대열과, 조사과 등과 같은 부서들이 있고 조사과에는 따로 감옥이 있다고 한다. 또한 매주마다 단위와 월별로 각 구역, 공장·기업소의 동향자료를 작성해 중앙에 보고하고 있다.<sup>97)</sup> 청진시의 경우 인구가 약 70만으로 북한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시장이 약 18~20개에 이를 정도로 시장 활동이 왕성한 곳이기 때문에 진압 인력도 많이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 나. 기동타격대의 일반 주민 활동 통제

기동타격대는 신설 이후 주민 소요가 발생하지 않아 실적이 없게 되자 본래 목적 이외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민간인의 폭동 진압 외에 활동 범위를 넓혀 공공장소나 골목길 등 사람들의 유동이 많은 곳을 찾아 불시에 증명서 확인, 몸수색, 짐 검열 등을 기본으로 하는 업무도 수반하고 있다.<sup>98)</sup> 우선 시장에 대한 일시적 폐쇄에 동원된다.<sup>99)</sup> 중요한

96) “북, ‘반정부투쟁’ 막을 기동타격대 강화,” 『자유아시아방송』, 2015.03.06.

97) “북, 인민보안성 ‘기동타격대’ 조직 대폭 강화,” 『노컷뉴스』, 2011.09.26.

98) 광명일, “북한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 변화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p. 44~45.

99) 2015년 10월 10일 당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건설현장 노력동원을 위해 장마당을 축소 운영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바 있다. 모든 장마당을 오후 4~9시까지만 운영하도록 중앙의 방침이 정해진 것이다. 새벽시장을 닫으라는 지시도 함께 내려왔는데 도보안국

국가 정치행사나 기념일, 농촌지원 시기에 시장 폐쇄에 동원되는 것이다. 둘째, 국경도시에 있는 기동타격대의 경우 당창건 기념일 등 주요 정치행사 시 국경경비에도 동원된다. 셋째, 비법적인 시장 행위 단속 활동도 하고 있다. 과도한 단속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고 단속 과정에서 군인과의 마찰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3년부터 기동타격대의 주민 단속 업무를 금지시키고 소요 진압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기동타격대는 소요 진압 이외에 사회질서 유지, 비법 행위 단속 및 운송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면서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기동타격대의 무리한 단속 활동과 검문, 폭력 등으로 도당과 도보안국에 불법행위를 폭로하는 신소가 많아졌다고 한다. 주민들에게 위압적인 태도로 상당히 거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이 기동타격대를 신설하고 강화하고 있는 것은 소요사태 발생 가능성을 많이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속되는 공포정치와 주민통제 강화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내부적인 불만이 축적돼 우발적 ‘사건’을 계기로 주민불만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동타격대를 비롯한 주민에 대한 각종 물리적 통제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다. 전 주민을 상대로 한 안전장치 및 규율장치

북한은 주민통제 강화를 위해 2011년경부터 모든 개인신원 정보가 담긴 전자칩 내장 신공민증 발급을 추진해 왔다. 인민보안부도 주민 신원정보 DB화와 각 보안서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평양의 경우 2013년 거액의 예산을 투입,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한 평양 시민증을 교체 발급하였다. 짧은 시간에 대규모로 교체가 이뤄지면서 개

---

기동타격대가 동원돼 청진 새벽시장에서 거래되던 농수산물들을 차량에 실은 채로 모두 몰수하기도 했다. “북, 당창건 행사 위해 장마당 축소운영 지시한 듯,” 『뉴스시스』, 2015.08.10.

인정보가 잘못 입력된 시민증이 발급된 사례가 허다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개인정보 정정 행정절차가 복잡하자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평양 외 대부분 지역은 새로운 공민증 자체를 발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재정난으로 DB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심각한 전력난으로 원활한 전산망 운용이 불가능한 데 기인한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기존 공민증을 회수당한 상태에서 새로운 공민증도 발급받지 못해 타지역 이동 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표 IV-1 새로운 공민증 발급 현황

지역	사진촬영	발급여부
평양	2011년	2013. 8 발급 완료
함북 회령시	2010년 말	미발급
함북 온성군	2010. 9부터 3~4회 촬영	
나선 선봉지구	2015. 11	
함남 함흥시	2012. 7	
양강도 해산시	2011. 8	
함북 무산시	2012. 7	

자료: 저자 작성

북한은 2010년 공표 이후 경제난 등으로 일시 중단되었던 전자칩 내장 ‘신공민증’ 발급을 2016년 6월경부터 재추진하고 있다. 양강도에서는 2016년 7월경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공민증용 사진 촬영을 서두르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안서 인원 외 카메라 소지 주민들까지 동원, 기한 내 촬영을 위해 군보안서 주민등록과에서 교육 후 사진촬영에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이후 인민반회의에서는 “곧 신공민증이 나온다”고 고지하였다고 한다. 새로운 공민증은 현재 카드형에서 과거와 같이 수첩형태로 바뀌고, 직업, 거주·퇴거 등 기재 사항이 추가되며, 기존 흑백사진에서 고선명도의 컬러 사진으로 변경되어 도용위험

이 낮다고 선전하고 있다. 새로운 공민증에는 전자칩이 삽입되어 있어 필요시 즉시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주민들은 새로운 공민증 발급에 대해 공민증 갱신을 명분으로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탈북·행불자 등을 찾아내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 V. 결 론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도시를 통치(government)의 차원에서 본다면, 도시는 권력을 잡은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의 ‘소유’ 둘 다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해 온전히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사실 국가는 개인 또는 정치기구에 의해 결정되는 대상물이 아니라 ‘영향력의 네트워크’로서 대상화된 주체들을 훈육하는 기구와 메커니즘이며, 권력은 도처에 존재하는 ‘밀접하게 연계된 힘들의 네트워크’이다. 이는 인구 또는 집합체들(collectives)이라는 주체의 무리를 감시하고 훈육하는 실천들의 배열들(the sets of practices), ‘통치의 기술(art of government)’<sup>100</sup>로 다중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도시 역시 이런 통치 차원의 배열과 기술을 통해 다중적으로 구성되는 실재들이다.<sup>101</sup>

이런 차원에서 도시를 수행성의 차원에서 개념화할 필요가 있는데, 필자는 ‘수행적 도시(performative urban)’<sup>102</sup>를 제안하고 싶다. ‘수행적 도시’라는 개념은 도시가 ‘어떤 것이 된 것(is)’이 아니라 ‘행하는(do) 것’, 일련의 행위들이며, 명사가 아니라 동사, ‘존재(being)’가 아니라 ‘행하기(doing)’라고 보는 것이다.<sup>103</sup> 도시는 고정된 실재로서 또는 고정된 정체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수행의 연속 속에 있는 다중적인 실재들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도시는 도시라는 존재의 상시적 요소 및 외양을 생산하기 위해 반복되는 행위들이며, 다양한 힘들의 관계가 만들어낸 강제적인 틀, 일종의 사회-기술적 연결망 또는 장치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실재인 것이다. 그러나 도시의 수행성은 드 세르토(Michel

<sup>100</sup> Bob Jessop, “Bringing the State Back in (yet Again): Reviews, Revisions, Rejections, and Redirections,”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vol. 11, no. 2 (2001), pp. 149~153.

<sup>101</sup> 홍민, “역사적 다양체로서 사회주의 도시의 이해,” 고유환·홍민 엮음,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3), p. 39.

<sup>102</sup> ‘수행적 도시(performative urban)’ 개념은 본 필자가 버틀러의 수행성 개념을 원용하고 재구성하여 도시이론 차원에서 새롭게 만든 개념이다.

<sup>103</sup> 사라 실리 지음, 김정경 옮김,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서울: 엘피, 2007), p. 113.

de Certeau)의 지적처럼 단순히 ‘공간의 장악’<sup>104)</sup>이라는 전략적 장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전유(re-appropriation)해 내는 일상의 정치 또는 전술 역시도 포함하는 것이다.<sup>105)</sup> 즉, 세르토는 ‘기강 잡힌 기하학적 개념도시’의 변형과 착취에 저항하는 ‘인류학적 사실도시’로의 지향을 말하고 있지만<sup>106)</sup>, 그것은 한편으로 이 둘의 공존과 상호작용이 갖는 도시의 ‘수행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둘 모두가 수행적 도시 속에 있는 것이다. 또한 유르차크(Alexei Yurchak)이 소비에트 일상에 대한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데올로기적 진술이 갖는 ‘의미’와 ‘행위’ 차원의 이중성과 상호 구성적 관계가 ‘수행적 전환(performative shift)’을 갖듯<sup>107)</sup> 사회주의 도시는 의미와 행위의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고 수행되는 것이다. 이런 고정된 실체로 보이는 도시를 구성적인 행위들로 해체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도시는 기본적으로 물질성(materiality)을 갖는다. 도시가 갖는 물질성은 단순히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물리적 질료만으로 존재했던 것일까? 과연 사회가 물질성을 갖지 않는다면 사회로 존재할 수 있을까? 가령 현대의 우리가 휴대폰과 컴퓨터 없이 사회적 관계가 힘들게 되었듯이 시장, 상점, 간판, 도로, 공원, 관공서, 공장, 식당, 창고, 교통신호등, 보도블록, 이정표, 가로등, 상하수도, 정화시설, 통신망, 광케이블, 전봇대, 가로수, 주민등록증, 콘크리트, 아스팔트, 유리, 철근 등이 없으면 도시도 구성되

<sup>104)</sup> 남영호, “러시아 공장 작업장에서의 시간과 공간, 신체,” 『비교문화연구』, 제12집 1호 (2006), p. 65.

<sup>105)</sup> Michel de Certeau,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84), pp. xi v - x v; 홍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p. 48~50.

<sup>106)</sup> 장세룡, “신문화사와 공간적 전환: 로컬리티 연구와 연관시켜,” 『역사와 문화』, 제23호 (2012), p. 147.

<sup>107)</sup> Alexei Yurchak, *Everything Was Forever, Until It Was No More: The Last Soviet Generation*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p. 29.

기 힘들다. ‘강철’ 없는 사회주의 도시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까. 강철이란 물질과 야금술이 인류는 물론 사회주의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강인함을 상징해 왔는가를 보라.<sup>108)</sup> ‘도시됨’은 이 거대한 물질적 집합, 연결을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sup>109)</sup> 도시의 물질성은 다양한 성격을 갖는 질료들과 인간의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 도시가 갖는 다양한 면모의 경관 창출 역시 물질성을 통해 구성된다. 도시에 사는 인간은 이런 물질성을 전유하거나 또는 영향을 받으며 또는 그것과 속성을 교환하며 살아간다.

이런 측면에서 소위 국가나 도시를 구성하는 인간, 기구, 제도, 정책, 상징, 담론, 치안, 군대 등 모든 것은 물질성을 가지며, 그것은 인간과의 결합을 통해 구현된다. 사실 국가나 도시의 외양과 외관은 물론 그것의 내적 동학 역시도 물질적으로 구성된다. 가령 물질성은 도시에 대한 통치술의 핵심이자 통치를 위한 인구(도시민)와 사회에 대한 가독성(legibility)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sup>110)</sup>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통치에 대한 욕망을 위해 구축되는 사회-기술적 연결망이자 통치 대상인 인구를 적절히 배치하고 사회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회-기술적 장치 모두가 인간 행위자와 이 비인간의 물질성을 통해 구현된다.

따라서 도시 연구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시를 구성하는 행위자로 물질성(materiality)을 주요 탐구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도시가 다양하고 이질적인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이 배치되고 연결된 사회-기술적

<sup>108)</sup> 재레드 다이아몬드 지음, 김진준 옮김, 『총, 균, 쇠: 무기·병원·금속은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가』 (서울: 문학사상사, 1998), p. 20.

<sup>109)</sup> 이런 물질적 집합과 연결은 사회주의국가의 전화번호부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령 북한의 전화번호부를 보라. 도시 내·외부를 연결하는 수많은 기관, 조직, 인간, 상하수도, 매체, 상업 유통, 상점, 공장, 기술, 지령, 통신, 자재, 화폐, 광물, 생산물 등을 볼 수 있다. 『(비밀) 전화번호부』 (평양: 체신성, 2002).

<sup>110)</sup> 인구와 사회에 대한 가독성을 통치술의 핵심문제라 바라보는 논의로는, 제임스 C. 스큷트 지음, 전상인 옮김,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서울: 에코리브로, 2010) 참조.

연결망<sup>111)</sup> 또는 장치(dispositif, apparatus, device), 그리고 그것의 배치와 조합이라는 아상블라주 또는 아장스망(asmontage, agencement)을 통해 수행되어지는 실재이기 때문이다.<sup>112)</sup> 다시 말해 도시를 연결되고 가입되고 결합된 구체적 행위자들을 통해 존재를 드러내는 사회-기술적 아상블라주(연결·조립)로 봄으로써 물질이 갖는 행위 능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sup>113)</sup> 가령, 도시는 ‘구축된 환경들, 공간들, 그리고 기술들’을 포함하는 물질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은 하나의 세력(forces)으로서 행위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sup>114)</sup> 더 나아가 도시가 갖는 물질성은 담론, 즉 상징적 의미, 재현, 그리고 인지구조와 실천, 즉 다양하게 조직된 사회적 활동의 행위를 구체화하는 행위자들인 것이다.

사회주의 도시는 인간에 의해 대상화된 수동적인 객체이기보다 자신이 품고 있는 물리적 구성물, 형태와 관성, 인간 행위 등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역사적 주체의 위상을 갖는다. 그것은 도시가 다양한 인간, 비인간 행위자들의 네트워크와 결합을 통해 구성되며 도시 자체도 하나의 행위자로서 은유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런 차원에서 도시를 보다 살아있는 역사적 행위체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도시를 다중성(multiplicity), 가독성(legibility), 수행성(performativity), 물질성(materiality) 등의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도시가 행위성

<sup>111)</sup> William N. Kaghan and Geoffrey C. Bowker, “Out of Machine Age?: Complexity, Sociotechnical System and Actor Network Theory,” *Journal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Management*, vol. 18, no. 3-4 (2001), pp. 258~259.

<sup>112)</sup> John Allen and Allen Cochrane, “Assemblages of State Power: Topological Shifts in the Organization of Government and Politics,” *Antipode*, vol. 42, no. 5 (2010), pp. 1071~1073.

<sup>113)</sup> ANT는 푸코의 장치(dispositif) 또는 들뢰즈의 아장스망(asmontage)과 유사하게 네트워크들에 연결되고 등록된 다양한 기호화적이고 물질적인 요소들의 이질적인 결합과 갈등에 주목한다. 그런 측면에서 ANT는 어떤 과정의 기저를 이루는 리좀적 구조를 드러내는 데 관심을 갖는다.

<sup>114)</sup> Patrick Carroll, *Science, Culture, and Modern State Form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pp. 14~15.

(agency)을 구성하고 행위하며 변화하는지를 이들 개념을 통해 볼 필요가 있다.<sup>115)</sup>

도시의 정치적 리얼리티는 중앙의 의도를 벗어나고 수정하고 이용하고 타협하는 그 도시의 내적 힘들을 의미한다. 그런 힘들은 단순히 인간들의 관계들로만 이루어진 정치적 흥정의 과정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수많은 우회(detour)와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

<sup>115)</sup> 홍민, “역사적 다양체로서 사회주의 도시의 이해,” p. 37.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일성. “건설사업에서의 혁신을 위하여-전국건축가 및 건설자회의에서 한 연설(1956.01.30.)” 『김일성저작집 제10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0.
- \_\_\_\_\_. “건설분야에서 당정책을 관철할 데 대하여(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1957.10.19.))” 『김일성저작집 제11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1.
- \_\_\_\_\_. “건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평양시건설자회의에서 한 연설(1958.12.25.))” 『김일성저작집 제12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1.
- \_\_\_\_\_. “신년사.” 『김일성저작집 제44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6.
- 아르네스 블록토르벤 엘고르 엔센 지음. 황장진 옮김. 『처음 읽는 브뤼노 라투르: 하이브리드 세계의 하이브리드 사상』. 서울: 사월의 책, 2017.
- 마르틴 바른케 지음. 노성두 옮김. 『정치적 풍경』. 서울: 일빛, 1997.
- 미셸 푸코 지음. 박정자 옮김.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1976,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강의』. 서울: 동문선, 1998.
- 박형중·최사현.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사라 실리 지음. 김정경 옮김.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서울: 엘피, 2007.
- 사카이 다카시 지음. 오하나 옮김. 『통치성과 ‘자유’: 신자유주의 권력의 계보학』. 서울: 그린비, 2011.
- 재레드 다이아몬드 지음. 김진준 옮김. 『총, 균, 쇠: 무기·병원·금속은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가』. 서울: 문학사상사, 1998.
- 제임스 C. 스콧 지음. 전상인 옮김.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서울: 에코리브로, 2010.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uu.
- 존 레니에 쇼트 지음. 이현옥 외 옮김. 『문화와 권력으로 본 도시탐구』. 서울:

- 한올아카데미, 2001.
- 주강현. 『북한의 민족생활풍습 50년사』. 서울: 민속원, 1999.
- 주디스 버틀러 지음. 조현준 옮김. 『젠더 트러블』. 서울: 문학동네, 2008.
- 크리스 바커·다리우시 갈라신스키 지음. 백선기 옮김. 『문화연구와 담론분석: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담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 토비 클락 지음. 이순령 옮김. 『20세기 정치선전 예술』. 서울: 예경, 2000.
- 피어 홀 지음. 임창호 외 옮김. 『내일의 도시: 20세기 도시계획 지성사』.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9.
- 통일원 정보분석실 엮음. 『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1992.
- 홍 민.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Austin, J. L. *How to do Things with Word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 Callon, Michel, Fabian Muniesa and Yuval Millo, *Market Devices*. Blackwell Pub: Sociological Review, 2007.
- Carroll, Patrick. *Science, Culture, and Modern State Form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 Certeau, Michel de.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84.
- Johnston, R. J. *Urban Residential Patterns: An Introductory Review*. New York: Praeger, 1972.
- Latour, Bruno.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Theory*. New York: Oxford Univ. Press, 2007.
- Nordlinger, E. *The Autonomy of the Democratic Stat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 Yurchak, Alexel. *Everything Was Forever, Until It Was No More: The Last Soviet Generation*.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 2. 논문

- 곽명일. “북한 인민보안원과 주민의 관계 변화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6.

- 김근용. “북한의 주거실태와 주택투자 소요 추정.” 『건설경제』. 통권 57호, 2008.12.
- 김영나. “유토피아의 신기루: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사회주의 도시와 모뉴먼트”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제21집, 2004.
- 남영호. “러시아 공장 작업장에서의 시간과 공간, 신체.” 『비교문화연구』. 제12집 1호, 2006.
- \_\_\_\_\_. “사회주의 도시의 상투성.” 『중소연구』. 제35권 4호, 2012.
- 리광·리성철. “도시입구공간의 건축 형성과 시점의 특징.” 『조선건축』. 2006년 제3호, 2006.
- 이지연. “기념비와 스탈린 신화: 권력의 재현적 공간으로서의 소비에트 예술과 삶.”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엮음. 『유토피아의 환영: 소비에트 문화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
- 임강택. “북한 시장 활성화의 숨은 그림, 국영기업의 역할.” 『KDI 북한경제리뷰』. vol. 16, no. 6, 2014.
- 장성수·윤혜정. “북한의 주택정책과 건설실적에 관한 연구.” 『주택포럼』. 2000년 제2호, 2000.
- 장세룡. “신문화사와 공간적 전환: 로컬리티 연구와 연관시켜.” 『역사와 문화』. 제23호, 2012.
- 진희관·신지호. “북한의 경제관리 방식과 김정일체제의 경제정책 변화.” 고유환 엮음.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변화』. 서울: 선인, 2006.
- 홍민. “북한의 인구정치와 식량체제: 인구학적 변화 속의 주민 일상.” 홍민·박순성 엮음.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지배와 저항 사이에서』,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3.
- \_\_\_\_\_.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_\_\_\_\_. “역사적 다양체로서 사회주의 도시의 이해.” 고유환·홍민 엮음,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3.
- \_\_\_\_\_. “북한의 아파트 건설시장과 도시정치.” 『KDI 북한경제리뷰』. vol. 16, no. 8, 2014.
- \_\_\_\_\_. “토막집에서 고층아파트까지-북한의 주거문화.” 『월간 북한』. 2004년 8월호, 2004.

Allen, John and Allen Cochrane. “Assemblages of State Power:

- Topological Shifts in the Organization of Government and Politics." *Antipode*. vol. 42, no. 5. 2010.
- Derrida, Jacques. "Signature Event Context." in *A Derrida Reader: Between the Blinds*. edited by Peggy Kamuf.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1.
- Fourcade, Marion. "Theories of Markets and Theories of Socie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50, no. 8, April 2007.
- Jessop, Bob. "Bringing the State Back in (yet Again): Reviews, Revisions, Rejections, and Redirections."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vol. 11, no. 2. 2001.
- Kaghan, William N. and Geoffrey C. Bowker. "Out of Machine Age?: Complexity, Sociotechnical System and Actor Network Theory." *Journal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Management*. vol. 18, no. 3-4. 2001.
- Kjellberg, Hans and Helgesson, C. F. "Multiple versions of markets: Multiplicity and performativity in market practice"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vol. 35, no. 7, 2006.
- Ward, Kevin and David Imbroscio. "Urban Politics: An Interdisciplinary Dialogu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35, no. 4. 2011.

### 3. 기타자료

- 『노동신문』.
- 『노컷뉴스』.
- 『뉴스시스』.
- 『데일리NK』.
- 『도쿄신문』.
- 『동아일보』.
- 『립진강』.
- 『연합뉴스』.
- 『자유아시아방송』.
- 『조선건축』.

『조선중앙통신』.

『중앙일보』.

『통일뉴스』

『KOTRA 북한경제정보』.

『NK지식연대』.

국가지식포럼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

김영성. “북한의 건축양식들.” 월남 건축인 김영성씨 대한건축학회 특별강연회 자료, 1993.07.

박형중. “최용해 좌천의 배경과 의미.”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4-05, 2014.05.14.

이규창. “인민보안단속법(구 사회안전단속법) 개정과 북한의 주민통제 강화.”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1-31, 2011.11.15.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2013.04.11, 통일연구원).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2013.10.05, 통일연구원).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2013.10.07, 통일연구원).

**KINU 통일포럼 시리즈**

-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 2015-04 제10차 KINU 통일포럼: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통일연구원
- 2015-05 제11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 2016-02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 2016-03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

-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 2015-02 최근 2년 간 미·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욱
-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 2015-05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이애리아, 이창호
- 2015-05 The Reality and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Workers in the Maritime Province of Russia Lee Aeliah
-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 20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 2016-06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 2017-01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주요 발언 통일연구원
- 2017-02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홍 민 외

**통일플러스**

-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 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 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 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 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 2016-01 KINU 통일 + Vol. 2 No. 1 (봄호) 통일연구원
- 2016-02 KINU 통일 + Vol. 2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 2016-03 KINU 통일 + Vol. 2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 2016-04 KINU 통일 + Vol. 2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2017-01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홍 민
2017-02 중국의 19차 당 대회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전병곤
2017-03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평가 및 권력구조 전망	박영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욱 외	19,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i>	도경욱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욱 외	18,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i>	도경욱 외	22,500원
북한인권백서 2017	도경욱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7</i>	도경욱 외	24,500원

**연구보고서**

**2015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홍 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교육과정·교과서	조정아 외	13,500원
2015-04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요인의 식별(2015~2030)	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손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에측시계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종합요약보고서)	전병근 외	10,000원
2015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배종렬 외	13,000원
2015 Inter Korean Relations and the Unification Process in Regional and Global Contexts	박종철 외	

###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	-------	--

### ■ Study Series ■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 2016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윤 외	14,000원
2016-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2016-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정구연, 이기태	6,000원
2016-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미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 이경화	8,000원
2016-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이규창	8,000원
2016-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홍우택 외	7,000원
2016-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김석진, 홍재환	8,000원
2016-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외	13,000원
2016-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식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외	9,500원
2016-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임예준 외	8,500원
20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 외	7,000원
2016-14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7,000원
2016-15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욱 외	14,000원
2016-16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외	8,000원
2016-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김수암 외	8,500원
2016-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 외	15,000원
2016-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중호 외	16,500원
2016-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	12,000원
2016-21 2016년 통일에측시계	홍우택 외	7,000원

2016-22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19,000원
2016-23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홍민 외	12,000원
2016-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홍민 외	13,000원
2016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7,500원
2016	북한의 제4차, 5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전략 모색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홍석훈 외	9,5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민태은
2016-02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2016-03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임강택, 이강우
2016-04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이상신, 오경섭, 임예준

### ■ Study Series ■

2016-01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2015-2030)	Park, Hyeong Jung et al.
2016-02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2016-03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2016-04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2016-05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rn et al.

## 2017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2017-01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7-03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7-04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서 통일담론의 모색	이상신 외	8,500원
2017-05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민태은 외	9,500원
2017-06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민태은 외	13,000원
2017-07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조한범 외	7,500원
2017-08	한반도 평화로드맵 실천전략	홍민 외	7,000원
2017-09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임강택	8,000원
2017-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정성운 외	8,000원
2017-11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조정아, 최은영	9,500원
2017-12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	임강택 외	12,000원
2017-13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김삼기 외	11,000원
2017-14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정구연 외	7,000원
2017-15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한동호 외	7,500원

2017-16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임예준, 이규창	9,000원
2017-17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박영자	13,000원
2017-18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홍제환	7,500원
2017-19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홍민	6,000원
2017-20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정성운	6,500원
2017-21-01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1부)	전병곤 외	9,500원
2017-21-02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2부)	전병곤 외	9,500원
2017-22-01 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	현승수 외	10,000원
2017-22-02 주변국 국경안보: 사례와 검증	현승수 외	9,500원
2017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인권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3,5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2017-01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 분석과 추진방향	이규창 외
2017-02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조한범, 이우태
2017-03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이상신 외
2017-04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	임강택, 홍제환
2017-0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이규창 외

### ■ Study Series ■

2017-01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e Measures	Chung, Sung-Yoon et al.
2017-02 Study on Changing Trend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ituation in North Korea	Rim, Ye Joon et al.
2017-03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ise of Cyber Warfare and Unmanned Aerial Vehicle	Chung, Kuyoun · Lee, Kitae
2017-04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bout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Kim, Soo-Am et al.

### 연례정세보고서

201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8,000원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6~2017	통일연구원
201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7~2018	통일연구원

## 논총

---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4, No. 1 (2015)</i>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4, No. 2 (2015)</i>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5, No. 1 (2016)</i>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5, No. 2 (2016)</i>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6, No. 1 (2017)</i>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26, No. 2 (2017)</i>	10,000원

## 기타

---

2015 북한교화소	한동호 외
2016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한동호 외
2016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6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도경옥 외
2016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Do, Kyung-ok et al.
2016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7 북한 내 이동의 자유	한동호 외
2017 Freedom of Move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 속*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락처*	TEL		이메일
이메일 서비스	수신 ( )		수신거부 ( )
회원 구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사항: 성명, 입금일자,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선택사항: 입금자, 이메일서비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시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